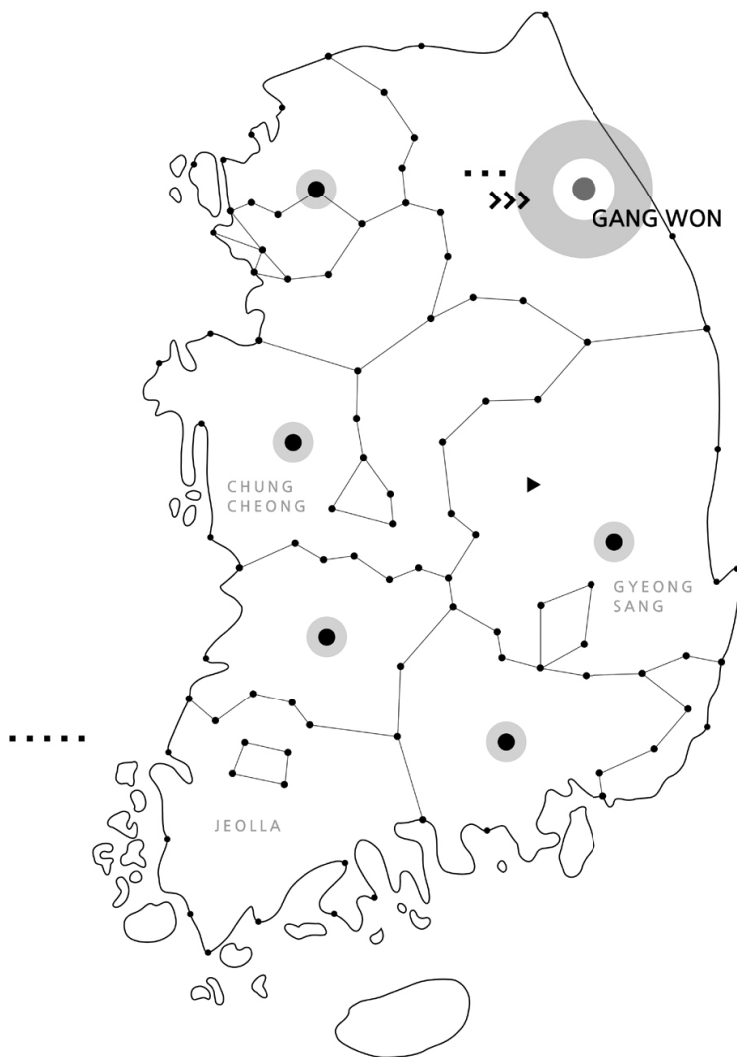


「강원도 지명사전편찬」을 위한
학술세미나

강원도 지명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2019
6. 21. (금) 14:00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강원학연구센터
The Institute of Gangwon Studies

Program

참석자 등록 13:30~14:00

개회식 사회 박상헌(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사말 육동한(강원연구원장) 14:00~14:10

기조발제 14:10~14:50

한국 지명 사전 편찬 동향과 강원도 지명연구
/ 김기혁(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주제발표 15:00~16:20

강원도 지명의 연구성과와 방향
/ 심보경(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지명연구
/ 김무림(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지명사전 편찬을 통해 본 시사점
/ 이상배(서울역사편찬원장)

토론 좌장 장정룡(강원학연구센터장) 16:30-18:00

김상수(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유재춘(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옥영(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이영식(강릉원주대학교 강사)

김창환(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학주(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용호선(강원일보 논설위원)

최홍열(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Contents

| 기초발제 |

한국 지명 사전 편찬 동향과 강원도 지명 연구	9
/ 김기혁(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 주제발표 |

강원도 지명의 연구성과와 방향	
/ 심보경(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47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지명연구	
/ 김무림(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63
서울지명사전 편찬을 통해 본 시사점	77
/ 이상배(서울역사편찬원장)	

【기조발제】

한국 지명 사전 편찬 동향과 강원도 지명연구

김기혁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한국 지명 사전 편찬 동향과 강원도 지명 연구*

김기혁 /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목 차

- | | |
|----------------------------------|------------------------------|
| 1. 들어가면서 | 3. 1960년대 이후 지명 사전 |
| 2. 조선-일제강점기 한국의 지명 자료 : 지리지와 고지도 | 4. 한국 지명 DB와 강원도 지명 |
| | 5. 맺음말 : 강원도 지명 사전의 편찬 방향 제언 |

1. 들어가면서

1) 지명과 사회

1.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할 경우 선생님은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는 “물론 이름을 바로 잡는 일(正名)이다.”라고 답하였다.(『논어』 「자로편 3」)
2. 1968년 소련이 수도 프라하의 봄을 진압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였다. 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지 못한 프라하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길에 붙어 있던 모든 도로 표지판을 떼는 것이었다. 프라하는 지명이 없는 도시가 되었고, 소련군은 길을 잃고 한참동안 헤매었다.(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984)
3. [본관, 本貫] 성(姓)의 출자지(出自地) 또는 시조의 거주지. 본관제 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담고 있는 자료는 15세기 초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항이다. 성의 수는 약 250개 내외이며, 본관 수는 현(縣) 이상만 하더라도 530여 개나 되고, 촌락을 본관으로 한 촌성(村姓)과 향(鄉)·소(所)·부곡(部曲)·처(處)·장(莊)·역(驛)·수(戍)까지 합산하면 15세기 이전에 존속하였던 본관 수는 1,500개가 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본관」)

* 이 글은 '사전 편찬 정보 통합 DB 구축'(201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임.

1번 구절은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인 자로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정명(正名)은 ‘말은바 도리를 지키도록 바라 잡아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이름과 명분과 사실은 서로 어울려야 함을 보여준다. 2번의 군데라의 소설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명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한다. 3번 구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지명과 더불어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Martin Heidegger, 1927, 『존재와 시간』).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고 듣는다. 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받음으로써 소통으로 하여 자신과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삶을 영위해나간다. 말 속에는 사람의 이름(인명), 사물의 이름(물명)과 함께 장소의 이름(지명)이 섞이면서 전달되는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말하는 행위와 이들 속에 포함된 이름은 일상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호흡을 구성하는 요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이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때로는 무시되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과 행위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공간의 장소를 언어 기호를 통해 명명한 지명은 자의성(自意性, arbitrariness)이 있다. 여기에서 자의성이라 함은 공간의 사실적인 내용과 언어로 표현된 의미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춘천’ 지명의 예를 들어보자. ‘춘천’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봄내’이다. 그러나 이 의미는 춘천의 지리적인 사실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도시는 춘주(春州), 춘성(春城), 춘천(春川)으로 변화되면서 불러왔다. 지명에서 ‘春’자는 공유된 장소의 이미지가 언어기호인 지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사실과 언어 기호의 의미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나, 변화의 방향은 지속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장소 명명에서 개인의 자의적(恣意的)인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명은 사회 집단 속에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관습, 계약, convention)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춘천’이라 부르고 다른 사람은 ‘춘성’ 혹은 ‘춘주’라고 부른다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떤 공동체가 지명을 사용할 경우, 구성원들 사이에는 일정한 약속이 맺어지고, 항상 그 약속에 따라 해당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의 합의에 의해 그 약속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이 단독으로 지명을 바꿀 수 없다.

2) 지명과 사전

지명은 지리지와 지도에 기록됨으로써 공유된다. 인류의 기록에서 가장 먼저 기술된 주제는 역사와 지리이다. 땅 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의 장소와 위치를 서술하기 위해 지명이 사용되었다.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탐험이 이루어진 새로운 땅의 지리를 기술하기 위해 지리지와 편찬되었고, 새롭게 명명된 지명이 지리지에 수록되었다.

동양에서도 지리지 편찬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중국에서는 ‘방지(方志)’,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지(地理志)’ 형태로 편찬되었다. 이들 문헌은 지방별로 동일한 체제를 바탕으로 지명을 이용하여 지역을 설명하였다. 근대적인 의미의 백과사전 형태로 편찬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에도 어어져,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주관하여 지리지와 지명사전이 지속적으로 편찬되고 있다. 옛 지리지에 수록된 지명은 언어기호의 역사성으로 인해 지명 변화 뿐만 아니라 역사지리 연구에 활용된다.

지명 사전(事典)은 근대의 산물이며, 백과사전¹⁾의 한 형태로 특수 사전에 해당된다.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중국은 1세기 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지명 사전은 16~17세기 지도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다. 149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가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면서 유럽은 대항해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양을 건너 새로운 땅을 경험한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새롭게 명명한 지명을 경위도 좌표로 찍었으며 이들 지리 정보는 유럽에 전달되어 종합되었다. 항해가 빈번해지고 지리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유럽은 세계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고, 1569년에는 메르카토르(Gerhardus Mercator, 1512~1594)가 세계 지도를 완성하였다. 이후 근대 국가가 출현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지도를 제작하면서 정확한 지명의 표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도는 공간의 표상을 일정한 형식을 이용해 표현한 것으로, 이미지와 함께 지명을 기재하여 장소의 위치 정보를 표현한다. 지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로 지명을 통해 장소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지리지에서는 지명 표제어의 설명에서 옛지명, 이칭 수록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지도에서 지명 표기는 1장소 1지명만 표기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지도가 인쇄 매체를 통해 사회에 보급되고 대중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었다. 이 오류는 이미지가 아니라 지명에서 발생되었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함을 알게 되었다. 기재 지명이 좋은 지도와 나쁜 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명의 표준화를 위해 지명사전(Gazetter)을 편찬하게 되었고, 국가에 속하지 않은 해양의 경우 UN지명위원회(UNGEGN)나 국제수로기구(IHO)를 비롯한 국제협약기구에서 다루게 되었다.

1) 백과사전은 ‘과학·자연 및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일체의 지식을 압축 정리해서 각 사항을 가나다순(알파벳순), 분류순 또는 기타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엮은 책’으로 정의된다. 동양에서는 유사(類書)에 기원을 두며 서양은 로마의 플리니(Pliny)가 편찬한 『박물지(Naturalis Historiae)』를 사전의 시초로 보고 있다. 이의 편찬방식은 동양의 유사와 같은 것으로 중세에서 17세기까지의 백과사전은 이러한 편찬방식을 따랐다. 현대백과사전의 시초는 1768년부터 1771년까지에 걸쳐서 영국에서 간행된 『브리태니카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에는 학원사에서 출간한 『대백과사전』(6권)을 시초로 보고 있으며, 1983년의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30권)에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1년에 발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7권)은 한국학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형태의 지명사전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 지명 조사 내용을 정리한 『조선지리지자료』를 시초로 볼 수 있다. 광복 이후에는 여러 지명 사전이 편찬되었다. 이 중 『한국지명총람』(20권, 한글학회, 1966~1986)이 대표적이며, 이들 사전은 편찬 목적에 따라 형식과 체제, 지명 지식의 구성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에는 지명의 지리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변화 과정이 담겨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내용이 반영된다. 동시에 편찬 주체는 사전을 통해 지명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략이 담겨 있다.

20세기 우리나라 국토는 질곡의 역사를 겪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명은 장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수단이며, 이를 정리한 사전은 국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지리지와 지명 사전을 분석하여 지리지식이 사전으로 정리되어 사회화되어 가는 모습을 파악하고, 동시에 21세기 우리나라의 지명 사전 편찬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아가 분단된 강원도를 사례로 바람직한 지명사전의 편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조선-일제강점기 한국의 지명 자료 : 지리지와 고지도

우리나라의 지명은 삼국시대와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었고, 한글이 사용되면서 한자와 한글 지명이 동시에 사용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순한글지명도 한자지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유의 형태가 많이 상실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자연환경의 변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행정 지명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 반영된 지명이 적지 않게 명명되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지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지명의 유래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의 지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편찬된 지리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명을 수록한 지리지의 편찬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여기에 수록된 지명은 당시 지명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표 1은 조선시대 이전에 편찬된 지리지이다.

표 1. 조선 이전의 지리지

	지리지	편찬시기	서지	수록내용과 지명
	『삼국사기』 「지리지」	1145년 (고려 인종 23)	전 59권 제34~37권 잡지 지리	군현 지명 연혁
	『고려사』 「지리지」	1451년 (문종 원년)	전체 139권, 지(志) 49권 중 3권	군현 지명 연혁
조선 전기	『신찬팔도지리지』(멸실)	1432년(세종 14)	←『경상도지리지』 (1425)	(1424년 변계량 편찬 지시) 13개 항목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단종 2)	8권 8책	21개 항목
	『팔도지리지』(멸실)	1478년((성종9)	←『경상도속찬지리지』 (1469)	(1455년 양성지 편찬 지시) 29개 항목
	→『동국여지승람』	1481년(성종 12)	50권	동람도, 도별도, 시문·제영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중종 26)	55권 25책	산천 지명
18 세기	『여지도서』	1757~1765	55책(313군현) 채색지도 첩무	산천지명, 동리 지명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1770년(영조 46)	26권(신경준)	연혁, 산천 지명,
	『호구총수』	1789년(정조 13)		전국 면·리·동 지명
19 세기	『대동수경』	1814년		정약용, (북한) 물길·지명
	『대동지지』	1861-1865년	32권 15책(김정호)	연혁, 산천지명, 등
	『읍지』(1831년)	1831년(순조 31)	『관동지』(1831)·『관 동읍지』(19C)·『경상 도읍지』(1833)	
	『읍지』(1871년)	1871년(고종 8)	『영남읍지』(1871)	
	『읍지』(1899년)	1899년(고종)	광무연간 읍지	

1) 삼국·고려시대 지리지

『삼국사기』 「지리지」는 1145년(고려 인종 23)에 김부식(金富軾) 이 삼국시대 당시의 군현 지명의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59권 중 「지리1」에서 「지리3」까지는 신라, 「지리4」에서는 고구려, 백제의 지명을 다루고 있다. 내용에서는 삼국통일 이후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관직과 지명을 중국의 당나라의 체제로 따르면서, 당시 고유한 우리 지명이 2~3음절 형태의 중국식 지명으로 바뀐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삼국시대의 이두식 지명도 담고 있어 고대 지명의 형태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 지명의 유래를 파악하는게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고려시대 지명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리서는 1451년(문종 1)에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가 있다. 편년체로 서술된 『고려사』 전체 139권 중 3권(제56~58권)이 해당된다. 제56권에는 개성부와 양광도, 57권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58권에는 교주도와 서해도, 동계와 북계의 지명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중심이 지금의 개성으로 옮겨진 이후 전국을 군현제도로 편제하면서 새로운 행정 지명이 생겨났다. 이 지리지는 고려시대 행정 지명의 연혁을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2) 조선시대 지리지

(1) 조선 전기

1392년 조선이 건국하고 1413년(태종 13)에는 팔도제와 군현제가 실시되면서 전국의 지명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국을 8도와, 그 밑에 4부, 5대도호부, 20목, 44도호부와 군, 현으로 구분하였다. 한양, 개경, 평양 등에는 부방제, 그리고 각 군현에는 면리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세종대왕 때에는 두만강 하류와 압록강 중류에 4군 6진을 두어 지금과 유사한 모습의 강역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국토의 행정구역 정비는 현재 지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조선은 전기에 『경상도지리지』(1425), 양성지(梁誠之)의 『팔도지리지』(1479) 등의 지리지를 편찬하여 국토의 지리와 지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3)을 비롯한 고지도를 제작하여 지명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① 『세종실록지리지』

1432년(세종 14)에는 맹사성(孟思誠)·신색(申穡)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1454년(단종 2)에 이를 바탕으로 편찬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제148권에서 제155권까지 8도의 지리지가 실려 있으며, 여기에는 전국의 군현의 별호(別號) 뿐만 아니라 향소·부곡 지명과 함께 명산(名山), 대천(大川) 등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② 『신증동국여지승람』

15세기 말 성종의 명을 받아 양성지(梁誠之)·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서거정(徐居正) 등이 편찬한 지리지이다. 명나라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바탕으로 하고 『신찬팔도지리지』를 대본으로 하여 1481년(성종 12)에 『동국여지승람』 50권을 완성하였다. 이를 다시 1486년에 증보·수정하여 『동국여지승람』 35권을 간행하고, 1499년(연산군 5)의 개수를 거쳐 1530년(중종 25)에 이행(李荇)·홍언필(洪彦弼)의 증보에 의해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 지리지는 이전에 비해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지명의 위치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당시 지명 서술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계기가 된 사료이다. 특히 각 도마다 지도를 첨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큰 하천들의 하계망이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다.

(2) 조선 후기 지리지

조선 후기 동아시아의 정세는 지리지 편찬과 고지도의 제작에 큰 변화를 유발하였다. 16~17세기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여러 사찬읍지들이 편찬되었으며, 18세기에 들어서는 지역사회가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이전 지리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국여지승람』의 개정 작업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완결되지 못한 채 18세기 중반 『여지도서』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①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지리지를 한데 모아 엮은 전국 읍지이다. 5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및 1개의 진지(鎭誌) 등 총 313 군현의 지리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다시 고치고 그동안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홍문관에서 각 읍의 읍지를 수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각 군현의 첫머리에 비교적 상세한 고을 지도가 덧붙여져 당시 지명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방리조에는 면과 리 지명과 위치를 비롯하여 산지, 하천, 사찰, 관방 등 여러 지명을 수록하고 있다.

② 『증보문헌비고』 「여지고(輿地考)」

1770년(영조 46)에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면서 그 중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주도하여 편찬한 지리지이다.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는 고종의 지시로 『증보문헌비고』가 만들어졌다. 이 중 「여지고」는 제13~39권까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역대 국제, 군현 연혁, 산천, 도리, 관방, 간도 경계, 궁실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군현 연혁에서는 각 고을 지명의 시대적인 변화를 담았다. 책에서 지명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은 산천조로 전국의 12산과 12강을 소개하였고, 각 도별로 산지와 하천 지명이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③ 『호구총수(戶口總數)』

조선시대 전국의 호구수를 기록한 책이다. 1789년(정조 13) 규장각에서 한성부의 초기(草記)를 기초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1책은 1395년(태조 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와 1789년 한성부의 인구 상황을, 제2~9책은 1789년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원춘도(原春道)·충청도·황해도·전라도·평안도·경상도·함경도 순으로 기재했는데, 한 도를 1책으로 하였다. 각 행정 구역에 속하는 면과 리(里)의 수, 동 및 리의 지명을 수록하고 있다.

④ 『대동수경(大東水經)』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1814년에 편찬한 책이다. 우리나라 하천 지명을 정리한 것으로 녹수(錄水, 압록강), 만수(滿水, 두만강), 살수(薩水, 청천강), 패수(溍水, 대동강), 저수

(沮水, 예성강), 대수(帶水, 임진강) 등 조선 북부의 6대 강을 서술하면서 하천의 발원지로부터 바다로 유입하기까지 강의 원류와 지류의 명칭, 유역의 군현의 연혁, 역사적 사건 등을 함께 수록하였다. 고적, 전설 등을 서술하면서 역사지리적인 고증을 하였다. 비록 한반도 북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의 하천 지명이 가장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지리지이다.

⑤ 『대동지지(大東地志)』

김정호(金正浩, 1804?~1866?)가 1861~1865년에 편찬한 전국 지리지이다. 김정호는 『동여도지(東輿圖志)』(20책), 『여도비지(輿圖備志)』(20책)를 편찬하였으며, 『대동지지』는 『동여도지』를 근간으로 삼고 『여도비지』를 참고로 보완하면서 편찬한 지리서이다. 구성은 경도(京都) 및 한성부(漢城府)가 1권, 경기도가 2~4권, 충청도가 5~6권, 경상도가 7~10권, 전라도가 11~14권, 강원도가 15~16권, 황해도가 17~18권, 함경도가 19~20권, 평안도가 21~24권까지 수록되어 있다.

⑥ 읍지

각 군현의 지리와 지명을 수록한 읍지는 조선 전기부터 편찬되었으나 조선 후기 임진 왜란이후 사찬 읍지가 만들어졌고, 『여지도서』 편찬 이후 각 고을의 지명과 지리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은 읍지가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 여러 차례 편찬되었다. 이 읍지들은 기초적인 지방행정구역이었던 부(府)·목(牧)·군(郡)·현(縣) 등 지방 각 읍을 단위로 편찬된 지리지이다. 도(道)와 군현(郡縣)의 지리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편찬 주체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관아 등에서 편찬한 관찬읍지(官撰邑誌)와 개인이나 지방의 인사들이 주관하거나 이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사찬읍지(私撰邑誌)로 구분된다.

읍지의 체제는 일정한 항목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항목 수는 20여 항목으로부터 80여 항목에 이른다. 이들 항목 중 면·리·동과 산천 지명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고지도와 함께 조선시대 지명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지면상 지도에 수록될 수 없는 지명을 많이 담고 있어, 위치에 대한 정보는 지도에 미치지 못하나 지명의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조선 후기 고지도

조선 후기 18세기는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 제작을 계기로 지도가 비약적으로 발달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각 고을의 지도를 책으로 엮은 지도책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군현지도의 제작은 국가의 지역 파악이 종래의 도별 단위를 극복하여 고을 단위까지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명 연구 측면에서 이들 지도는 각 고을의 산천을 비롯한 자연경관은 물론 읍치, 취락, 교육기관, 도로, 시장 등 지역 내용은 물론 지명도 기재되어 있어 중요한 자료 가치를 지닌다.

표 2. 춘천부 지도가 포함된 군현지도책

소장기관	지도명	청구기호	지도유형 및 비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海東地圖』	古大4709-41	8책, 회화식지도
	『朝鮮地圖』	奎16030	7책, 20리 방안식지도
	『輿地圖』	古 4709-68	6책, 회화식지도
	『廣輿圖』	古4709-58	7책, 회화식지도
	『(備邊司印)郡縣地圖』	奎12154-12158	6책, 1리 방안식 지도
	『慶州都會左通地圖』	古 4709-26	1책, 회화식 지도
	『地乘』	15423	8책, 회화식지도
국립중앙도서관	『東國地圖 三』	승계貫2702-22	1책, 20리 방안식 지도(경상도)
	『大韓地圖』	古朝61-27	6책, 회화식지도
	『輿地圖』	古朝 61-3	4책, 회화식지도
	『八道地圖』	古朝 61-21	6책, 20리 방안식 지도
	『海東輿地圖』	古2107-36	3책, 20리 방안식 지도
	『各邑地圖』	古朝 61-14	1책, 회화식 지도(경상도·전라도)
고려대도서관	『輿地圖』	B-10 A-53	2책, 20리 방안식 지도
	『慶尙道地圖』 ^{1,2}	귀 710 v 1.2	2책, 회화식 지도
	『地圖草』	B-10 A-199	3책, 기타 유형
	『地圖』	B-10 A-52	4책, 20리 방안식 지도
고려대 박물관	『東國輿圖』	2664	7책, 기타 유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嶺南圖』	K2-4564	3책, 1리 방안식 지도
	『地圖』	K2-4583	4책, 20리 방안식지도
영남대박물관	『嶺南·湖南地圖』	10196-10203	2책, 1리 방안식 지도

① 군현지도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군현지도의 서지사항은 표 2와 같다.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 도서관 및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별로 제작되어 있다. 대부분은 18세기에 제작되었으며, 19세기의 지도책은 이전의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낱장으로 그려진 지도도 적지 않으며 이의 대표적인 것은 규장각의 『1872지방지도』이다. 일부 낱장지도는 병풍식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읍지에 첨부된 지도로서 대표적인 것은 『여지도서』에 수록된 각 군현지도이다. 이 책이 편찬된 이후 각 지방의 읍지에서 지도가 첨부되었다.

군현지도는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통치·군사·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되었고, 제작 목적에 따라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도와 수록 지명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조선 후기의 군현지도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 회화식 군현지도 : 홍문관에서 주도하여 편찬된 지도로 회화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행정 지명이 매우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여백을 이용하여 각 방면 등의 지명도 기재되어 있다. 규장각의 『해동지도』가 대표적이다. 경물의 형상을 도형화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산과 나무, 강, 바다, 사찰이나 궁궐, 관아의 건물, 성곽, 봉화터 등 경물 도형들의 묘사 방식이 도식적이면서도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 산맥을 산들의 흐름을 따라 八형 먹선을 단선 혹은 2중이나 3중으로 중복시키면서 연결하고 그 위에 연녹색 담채를 가하였다. 관아나 성이 있는 읍치를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면서 상하좌우 각 방향으로 산봉우리를 높히듯이 그리는 개화식 구성방식을 쓰기도 한다.

나. 1리 방안 지도 : 비변사에서 주도하여 편찬된 지도와 이를 모사하며 부분 수정되는 지도들이 해당된다. 군사 관련 지명들과 함께 읍치, 면, 하천, 산, 봉수, 봉수로, 역, 진, 참, 서원, 절 지명들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에 1리 방안이 그려져 있으며, 일부 군현에서는 회화식 지도와 유사한 구도를 취하기도 한다. 산맥은 독립된 봉우리로 표현되어 있으며, 도로망과 봉수망이 붉은 선의 직선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군사적인 지리 정보가 강조되어 있다.

다. 20리 방안식 지도 : 지도 위에 20리 방안을 그려 동일한 축척으로 그려진 지도로서, 전국 지도의 제작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다. 다른 유형의 지도에 비해 지명 수는 적으나 위치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 범례를 사용하고 있어 지도학적인 수준이 높다. 산지는 청록색을 이용하여 줄기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주요 도로만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라. 지방군현지도 : 각 군현에서 지방 화원들이 그렸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실경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지도는 실제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수록 지명은 중앙에서 제작된 지도와는 달리 고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명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지도 중 교회사연구소의 『여지도서』에 첨부된 지도가 가장 먼저 그려진 지도로 보이며, 이후 편찬된 읍지의 부도는 이를 모사하고 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지도는 『1872년 군현지도』이다.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후 두 차례의 양요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1871년에는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 이듬해인 1872년에는 전국 차원의 지도 제작을 지시한 결과물이다. 이 지도들은 군현뿐만 아니라 여러 관방을 그린 지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한 시기에 제작되어 수합된 지방지도로는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도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제작되었고 이전 읍지에 첨부된 지도를 바탕으로 그렸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려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축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리 정보와 수록 지명은 다른 지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하다.

② 19세기 대축척 조선전도

19세기 들어 이전의 군현 지도 발달을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대축척 전도가 제작되었다. 책자식으로 만들어진 『청구도』와 분첩절첩식으로 제작된 필사본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고, 이들의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제작되었다.

『청구도』(1834)는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판으로 나눈 방안지도로서, 남북이 100리, 동서 70리가 지도의 1면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도면을 연결시키면 전국 전도가 된다. 대개 2책으로 제본되어 만들어졌다. 『대동여지도』(1861)는 책자식으로 되어 있는 『청구도』와 달리 전국을 남북 22첩으로 나누어 분첩절첩식 형태로 제작하였다. 방안을 이용하여 지도 축척을 표현함과 동시에 지도 제작 방법을 나타냈다. 이 지도에는 약 11,000여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자연지명은 6,600여개이다. 한편 김정호가 저술한 『여도비지』(1834), 『동여도지』(1852~1856), 『대동지지』(1861~1866)에도 상세한 지명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명 변화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3) 일제강점기 지명 사전과 지도

(1) 지명 자료와 지형도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조선총독부에 조선임시토지조사국(朝鮮臨時土地調査局)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측지 및 제도 제작 사업을 실시하였다. 1911년 일본 육지측지부의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1910년에서 1915년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측량을 완료하였다. 동시에 지명의 한자식 표준화를 위해 전국적인 지명조사를 통해 지명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명은 대폭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편찬된 지명 자료서와 사전은 표 3.과 같다.

표 3. 일제 강점기 지명 자료

지리지와 지도	편찬 시기	편저자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1910~1914	조선총독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칭일람』	1917년	오치 다다시치[越智唯七]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	1914~1918	조선총독부
『대동지명사전』(大東地名事典)	1931년	최남선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1910~1937	이병연

① 『조선지리지자료』(국립중앙도서관)

이 책은 일본이 1910년 한반도를 강점한 이후 지명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자료이다. 조사 사업은 지도 제작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책에 수록된 지명들을 볼 때 1910년에서 1914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한말인 1896년에 개편된 지명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책에는 지명의 분류, 한자와 한글 지명, 소재지 등의 내용이 한자 혹은 한글로 수록되어 있다. 조선의 기초 지명을 정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제 강점기 초에 나타난 지명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②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칭일람』

일본은 강점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행정 지명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1914년 3월 1일부터는 부·군의 폐합을, 또 동년 4월 1일부터는 면의 폐합을 단행하였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220개 군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그것은 오늘날의 행정구역의 바탕이 되었다. 이 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과 이후의 지명을 비교하여 편찬한 책으로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지명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복원 사업에도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③ 『조선지형도』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한 이후 1914~1918년에 제작한 1:50,000 지형도이다. 우리나라 전역을 722도엽에 그렸으며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1:10,000지도 등이 만들어졌다. 당시 일본에 의해 정리된 지명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는 1890년대 일본 참모 본부에 의해 비밀리에 제작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와 함께 지금 지명의 초기 내용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2) 지명사전과 지리지

① 『대동지명사전』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 편찬한 지명 사전으로 『육당 최남선전집』(제8권, 1973, 170~471쪽)에 수록되어 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한자 지명 항목과 이에 대해 위치 등의 내용이 한자로 설명되어 있다. 원본은 재단(裁斷)되지 않은 『아이들 보이』의 인쇄지 위에 오려 붙인 것으로 보아 1931년 경에 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300쪽에 걸쳐 매 쪽당 50개 내외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지명 항목은 원고에 쓰여진 표기를 1973년 편찬 당시의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여 배열되었다(예, 地(디→지), 定(딩→정), 女(녀→여), 柳(류→유).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추출한 것으로 내용에서 ‘금상(金上)’은 제11대 중종(中宗)을 지칭한다. 지명 설명도 『승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제하고 있다. 항목은 군현지명, 산, 섬, 암자, 하천, 사찰, 누락, 정자, 포구 지명을 추출하였다.

춘천 관련 지명의 설명은 ‘춘주’의 경우 ‘春州 春川古號’라 하여 간략히 설명하였고 ‘춘천’ 항목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치연혁』, 『풍속』을 전제하였다. 『형승』에 대해서는 ‘无’(없을 무)를 통해 항목이 없음을 나타냈다.

②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일제 강점기 이병연(李秉延)이 편찬한 지리서로, 1910~1937년까지 전국 241개 군 중 일부인 129개 군의 지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체제는 조선시대의 지리지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내용은 『대동지지』를 따르고 있다. 각 군(郡)을 한 권의 책으로 편제하였으며, 전반부는 조선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수록하였고, 후반부는 각 군에 관련된 인문 지리 현황을 49개 항목으로 나누어 게재하였다.

3. 1960년대 이후 지명 사전

1) 사전 편찬 동향

표 4. 한국 지명사전 편찬 동향(전국 단위)

사전 표제	편저자(편찬위원)	편찬연도	수록지명	체제	발행인
[학회 및 학술단체]					
『한글지명총람』(20권)	한글학회	1966(~1986)	일반지명	시·군별	문교부
→『한국 땅이름 큰사전』(3권)	한글학회	1991	일반지명	가나다순	문교부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전자)	한글학회	1991	일반지명	전자사전	문교부
『한국지명요람』	대한지리학회	1983	일반지명	시·군별	국립지리원
『한국의 산지』	한국측량학회	2007	산지지명	가나다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6권)	대한지리학회	2008(~2013)	일반지명	시·군별	국토지리정보원
『한국하천지명사전』	한국하천협회	2011	하천지명	가나다순	국토교통부
[개인 및 언론 단체]					
『한국지명연혁고』	권상로 편	1961	고지명	가나다순	동국문화사
→『한국지명연혁사전』	권상로 편	1994	고지명	가나다순	이화문화출판사
『한국지명연구』	홍시환 저	1968	일반명	가나다순	육군사관학교
『한국지명사전』	손성우	1974	일반지명	가나다순	경인문화사
『한국 고지명사전』	이영택, 정용신편	1993	고지명	가나다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역사지명사전』(전자)	편찬위원회	2005	고지명	전자사전	누리미디어
『한국의 지명 변천』	송호열	2006	일반지명	가나다순	성지문화사
『세계지명유래사전』	송호열	2006	일반지명	가나다순	성지문화사
『한국지명사전』	이민우	1993	일반지명	가나다순	한국교열기자협회
『세계지명사전』	한국교열기자협회	2000	일반지명	가나다순	한국교열기자협회
『지명대사전』	이민우	2004	일반지명	가나다순	연합뉴스
『세계인문지리사전』	한국교열기자협회	2009	일반지명	가나다순	한국교열기자협회

표 4는 광복 이후 발행된 지명 사전으로 편찬 주체와 사전의 형식, 내용 서술 방법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명 사전의 간행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권상로(1961)가 편찬한 『한국지명연혁고』는 해방 이후 최초의 지명 사전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글학회(1966~1986)의 『한국지명총람』이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홍시환(1968)이 『한국지명연구』 제하로 사전 형식을 갖춘 소책자가 발간하였다. 1970년대에는 손성우(1974)의 『한국지명사전』이 출간되었다. 1980년대에는 대한지리학회(1983)의 『한국지명요람』 제하의 사전이 간행되었으며 『한국지명총람』(20권)의 발행이 완료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한국지명총람』이 체제를 달리하여 출간되었으며, 이영택·정용신(1993)의 『한국고지명사전』, 이민우(1993)의 『한국지명사전』이 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대한지리학회(2008~2013)의 『한국지명유래집-남·북한편』을 비롯하여 산지와 하천 지명 등 특정 유형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이 출판되었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전은 『한국지명총람』(전 20권)과 『한국지명유래집』(전 6권)을 꼽을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1966~1986)은 20년에 걸쳐 편찬된 지명사전으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지명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지명유래집』(2008~2013)은 대한지리학회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사전으로 총 6년에 걸쳐 편찬된 지명 사전이다. 남·북한의 지명 유래를 고지도와 지리지를 중심으로 설명한 사전으로, 분단 이후 남·북한의 지명이 동일한 체제에 의해 함께 수록된 지명사전이다.

사전의 편찬 주체를 보면, 학회·학술단체, 개인 및 언론사에서 편찬한 사전으로 나뉜다. 사전 형태는 대부분 책 형태로 간행되었으나 한글학회(1991)과 역사지명 편찬위원회(2005)의 경우 전자사전 형태로 출간되었다. 지명 표제어 배열은 시·군 등 지역별 가나다순과 전체 가나다순으로 배치한 2가지 유형이 있다.

수록 내용으로 볼 때 전체 지명을 수록한 사전과 고지명, 하천지명, 산지 지명 등 특정 유형의 지명만을 수록한 주제지명 사전이 있다. 특수 사전 중 고지명 사전이 가장 많으며, 권상로(1961, 1994)와 이영택·정용신(1993)이 대표적이며 민간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들 사전에서는 지리지에 수록된 고지명의 현재 위치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지명 관련 서적으로는 『지명유래집』(국립지리원, 1987)과 『한국의 지명』(이영택, 1986, 태평양)이 있다. 이들 책은 사전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한국지명의 형태, 유래 유형 등을 설명한 것이다. 지리서로는 대한지리학회(1983~1988, 2004~2008)에서 간행한 『한국지리』가 있다. 이외에 지명의 관련 내용은 백과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전은 『동아원색대백과』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이며, 1990년대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군별) 『한국향토

전자대전』이다. 이들 사전이 전국 지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광역시·도 단위와 시·군 단위에서 주관하여 지역별 지명 사전이 ‘-지명사전’, ‘-지명유래’ ‘- 땅 이름’ 제하로 간행되었다.

2) 사전 체제와 내용 구성

(1) 일반 지명사전

① 『한국지명총람』(1966~1986, 한글학회, 4·6배판, 18권 20책, 각권 500쪽 내외, 한글학회) 한글학회에서 20여년에 걸쳐 전국을 도별로 나누어 지명을 수록한 사전이다. 문교부의 지원을 받아 편찬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책에 담긴 수록 지명은 가나다 순으로 재편집되어 1991년 『한국 땅이름큰사전』(상·중·하)이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과 함께 발행되었다.

1966년에 「서울편」을 시작으로 1986년 「경기편(하)」가 간행되었다. 「경기편」의 출판이 늦어진 것은 사업 초기 당시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1976~1977년에서야 지명 조사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도별·시군별로 편제되었으며 지명 표제어는 각 지역의 유형별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였다

「일러두기」의 [올림말](표제어)에서는 지명을 ‘자연물·인공물·기타로 말미암아 생긴, 지역성·역사성·대중성을 지닌, 땅의 이름’으로 정의하였고, 지명 수록 항목으로는 이칭, 문헌 지명, 유래가 없고 이름만 있는 지명도 포함하였음을 밝혔다.

[지명의 별임](배열)에서는 도(특별시, 직할시 포함), 구·시·군을 지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였으며, 법정동에서 분리된 행정동의 경우(예: 공덕1·2·3·4동) 숫자순으로, 동·리 등 소지명은 해당 시군구에서 지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다. 산지와 하천 등 자연지명은 시·군·구 앞에 별도로 두었으며, 1개 동·리에 속한 자연지명은 해당 동·리에 두었음을 밝혔다.

[풀이 방법](지명 설명)에서는 지명의 어원과 유래, 변천 과정과 자연환경 내용으로 지명 서술을 구성하였으며, 여러 이칭 중에서 지명 항목의 선정은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하거나, 비슷할 경우 순수한 우리말로 된 것을 표준으로 삼았음’으로 밝혔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명의 경우 ‘연고가 더 많은 동리’에서 설명을 달고, 다른 동리에서는 ⇨표시로 풀이가 있는 동리의 내용을 참조하게 하였다.

[지도·사진 붙임]에서는 책을 읽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사진을 삽입하였음을 간략히 밝혔다. 서울특별시 항목 설명에서 서두에 첨부된 지도는 「경도도」(1711년 이전), 「경조도」(1875), 「도성삼문분계지도」(1861), 「수선전도」(고종초기), 「서울지도」(1902), 「경성부지도」(1911) 등의 흑백 이미지이다. 이중 「경조도」에 대해 책에서는 ‘고종12년=1875년 고산자 만들’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지도 이미지가 「대동여지도」(1861)에 수록된 「경조오부도」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1861년(철종 12년)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지명 종류 표시의 부호]에서는 지명 분류와 유형을 표시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굵은 꺾쇠를 이용한 [특별시], [강], [고적] 등의 형태로 표시하였음을 밝혔다. 「서울편」에서 행정 지명은 위계에 따라 11개 유형, 자연지명은 강, 고개, 골, 나무, 섬 등 32개 유형, 인공지명은 고적, 다리, 수원지, 운동장 등 37개로 분류하였다.

② 『한국지명유래집』(2008~2013, 대한지리학회, 4·6배판, 5권 6책, 각 750쪽 내외, 국토지리정보원)

대한지리학회에서 6년에 걸쳐 남·북한의 지명 유래를 수록한 사전이다. 책은 중부편(서울, 인천, 강원), 충청편, 전라·제주편, 경상편과 북한편 I·II 등 총 6권으로 구성되었다. 지역편제는 대도시 권역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중부편』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과 강원도, 『충청편』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 지명을 수록하였다. 『전라·제주편』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지명이다. 제주도가 이 권역에 포함된 것은 조선시대에 전라도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경상편』에는 부산과 대구, 울산광역시를 비롯하여 경상남·북도 지명을 담았다. 북한편의 경우 관북과 관서 지방으로 나누어 2권으로 구성되었다. 제 I 권은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를 비롯하여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지명을 담았으며 제 II 권에는 나선특별시를 비롯하여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지명이 수록되었다.

각 책은 750~930여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록 지명은 매 권당 2,500~4,000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북한이 쪽 수에 비해 수록 지명이 많은 것은 1952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남한의 ‘면(面)’에 해당하는 구역이 폐지되어 ‘리(里)’로 되면서, 이의 변화 내용이 표를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체제는 각 권역의 시군별 체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지명과 자연지명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남한편의 경우 행정지명 항목은 남한편의 경우 행정안전부 자료에 수록된 항목을 기준으로 시·군·구과 동·읍·면 지명으로 정리되었다. 자연 지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지명,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지명, 각 지방의 향토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예비 지명 중 집필위원회에서 고지도와 지리지에 의해 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추천된 지명이 서술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북한의 경우 행정지명은 남한에서 발행한 『북한행정구역개황』(2008,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조선중앙연감』(2010, 2011, 2012)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자연지명은 북한지세도(1:250,000, 국토지리정보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고장이름사전』(2000)으로 보완하였다. 각 시·군구역 앞에는 지세도(1:250,000, 국토지리정보원)를 이용한 지도가 제시되어 있다.

지명 항목의 배치를 보면 남한의 경우 시·군별 순서는 행정안전부 행정코드의 순서에 따랐으며, 지역내에서는 행정지명 위계(구-동-읍-면) 내에서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었다. 자연지명은 산자-하천-해양-기타 지명 순으로 하여 유형별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었다. 자연 지명 중 2개 이상이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먼저 수록되는 구역에 배치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참조 표시를 하였다. 다른 지역에서 지명의 해석 의미가 다를 경우 2지역에 함께 수록하였다. 산지는 국토지리정보원 자료(2007)에 정리된 고도를 이용하였다. 북한의 경우 항목 배치는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북한 통계국, 2009)를 기준으로 하였다.

항목별 원고 매수는 사전적으로 행정구역의 단위에 따라 전체 분량을 정하고, 이 범위에서 각 항목의 서술 분량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지명에서는 광역시·도 지명은 6매 내외(원고지 200자 기준), 시·군·구 지명은 3매, 동·읍·면 지명은 2매, 산과 하천 등 자연지명은 2매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서술내용은 고지도와 지리지, 집필위원들의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이들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윤문을 거쳐 수정되었다.

표제어는 한글-한자-로마자 표기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로마자는 국립국어원(2000)의 『로마자 표기용례』에 준하였다. 지명 설명에서는 고지도와 지리지 등 사료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래와 함께 연혁, 어원, 장소의 지명에 얽힌 구전 설화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고, 고지도에 수록된 해당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명사전 편찬에서 볼때 이 책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지명이 함께 동일한 체제에 의해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분단 이전의 고지도와 지리지가 대부분 남한에 소재하여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국토가 동일한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사실적으로 밝힌 것이다. 둘째는 지명 유래의 설명에서 이전 지명사전과는 다르게 지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행정단위의 서두에 지형도를 수록하여 지명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고, 서술에서는 지명이 수록된 지도 이미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서술의 신뢰도를 높였다. 책의 아쉬운 점은 책의 분량의 제한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군과 읍·면의 원고 할당량이 적어 리와 마을 지명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다.

③ 『한국지명요람』(1983, 대한지리학회, 4·6배판, 1권, 853쪽, 국립지리원)

대한지리학회에서 1983년 전국의 지명을 대상으로 편찬한 지명 사전이다. 수록 항목은 휴전선 이남의 전 행정지명과 그 밖의 주요 자연, 인문 지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단위 지명 이외의 리·동 지명은 주요한 것만을, 일반 지명(자연·인문)은 지명도가 높거나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것만을 선정하여 표제어로 하였다(예: 한강, 지리산).

표제어 배열 순서는 ‘한국’을 맨 앞에, 그리고 특별시, 직할시, 각 도 등은 정부 간행물에서 사용하는 관례의 순에 따라 배열하였다. 이에 따라 장별 순서는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일반지명 구성되었다. 광역시·도 내에서 시·군·구, 읍·면·동은 같은 수준의 행정지명끼리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행정지명 뒤에 배치된 일반 지명은 자연·인문 지명을 구별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지역별 지명 뒤에 첨부된 「일반지명편」에서는 산, 산맥, 령, 하천 등 10개 항목에 대해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고, 이의 지리적인 내용을 담았다.

항목 지명의 원고량은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대항목 147행, 중항목 49행, 소항목 20~15행, 기타 지명 3~15행). 시, 군, 구 단위 이상의 지명의 내용은 「위치」, 「연혁」, 「자연」, 「산업」, 「교통·관광」, 「도시·인구·취락」으로 구성하였다.

사전에서 표제어는 한글 지명과 []속에 한자와 로마자 표기를 하였으며 이칭이 있는 경우 따로 ()를 표기하였다. 로마자 표기는 문교부 지명 표기에 따랐으며 일시 표시는 ‘년’과 ‘월·일’을 생략하였다. 통계수치는 내무부, 지방행정구역요람, 인구센서스 등을 이용하였으며 위치 서술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된 지도에 따랐다. 책의 제일 뒤에 첨부된 「색인」에 항목은 광역시·도별로 유형에 관계없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도 지명 서술에서 [강원도] 항목을 사례로 보면 7쪽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개관에 이어 [위치]-[연혁]-[자연]-[산업]-[교통·관광]-[교육·문화]-[인구] 항목에 대한 지지적(地誌的)인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강원도에 속한 산지와 하천을 유형과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지리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춘천시] 항목은 약 3쪽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춘천시’ 항목에서는 면적, 개요와 함께 하위 항목으로 [위치]-[연혁]-[자연]-[산업]-[교통·관광]-[교육·문화] 순으로 정리하고 하부 항목으로 교동, 근화동 등을 비롯한 21개 동 지명에 대해 주로 지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효자동의 경우 1·2·3동을 별도의 항목으로 배치하였다. 동 지명 뒤에 자연 지명 항목이 이어져 있으며 봉의산, 우두산의 2개 항목만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제목인 『한국지명요람』과는 다르게 행정구역별 항목 지명의 지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지지(地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항목 배치에서 광역시·도의 경우 국가 배열 순서에 따랐으나, 시·군·구 순서의 경우 유형별 가나다 순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④ 『한국지명연구』(1968, 홍시환 편, 국판, 1권, 284쪽, 육군사관학교)

1968년 전국 지명의 내용을 정리한 소책자 형태의 사전이다. 편저자인 홍시환(洪始煥, 1925~?)은 자연지리학을 전공하였으며 건국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재직하였다. 『한국의 동굴』(1990, 대원사) 등의 저서가 있다. 책의 표제는 지명연구이나 내용은 사전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지명을 기준으로 간략한 지리적인 지식을 소개한 지명 사전이다. 책의 부록에 55종의 한국 주제지도와

『한국통계자료』가 있다. 통계 자료는 각 도의 개관과 함께 경제기획원(1967)에서 발행한 통계표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지명 표제어의 추출 기준은 밝혀져 있지 않다. 항목수는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 1,000 내외로 추정된다. 지명 배열은 유형에 관계없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설명은 5~6줄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지명 설명은 위치와 유형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이후 지리적인 내용을 서술하였다. 시·군 지명의 경우 인구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지명 변화와 연혁 내용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⑤ 『한국지명사전』(1974, 손성우, 4·6판, 1권, 782쪽, 경인문화사)

1974년 남한의 10,000여개 지명을 대상으로 편찬한 지명 사전이다. 저자인 손성우(孫成祐)는 도서관 사서로 활동하였으며 『일본저자명편람』(1967)을 편저하였다. 지명 표제어는 행정지명인 시, 도, 구, 군, 읍, 면까지 수록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동까지 채택하였다. 자연지명 중 중요한 산, 강(천), 도서, 해, 해협, 만, 마도, 분지, 고원, 평야, 저수지 등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이외에 남한 전역의 철도와 역, 관광지 중 널리 알려진 곳, 정자, 사찰, 누락, 서원, 진, 고분, 성 중 중요한 곳, 종합대학, 일반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일부분에 해당하는 비행장, 교량, 터널 지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중 고지명이나 두 가지 이상으로 알려진 지명은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이들 표제어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중자음은 단자음에 이어 붙여 배치하였다. 동일 지명의 경우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 배열하였다.

항목별 서술 내용을 보면, ① 행정구역: 인구수, 면적, 지명의 변천과정, 주요 특징과 특색, 주요 산물, 특기 사항, ② 도서: 면적과 인구, 동, 리 수와 위도 및 경도, 인근 지역과의 거리, 특산물 ③ 자연지명(산, 강, 해, 평야): 길이, 넓이, 높이와 위치, 지명 유래, 주요 특색, ④ 역사지명(정자, 사찰, 성곽, 누락, 관방진, 서원) : 건립 연도와 그 역사 ⑤ 철도, 역: 설립연도, 규모, 위치, 그 역과 관련된 철도 노선명, ⑥ 종합대학 : 건립 연도, 소재지, 단과대학 수를 수록하였다. 서술에서 길이와 높이, 면적은 미터법에 의해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저수지의 면적은 평수로 표기하였다. 부록에서는 1945년 8월을 기준으로 『북한지구 행정구역』을 수록하고 있다.

춘천 관련 항목으로는 춘천시, 춘성군, 춘천댐, 춘천분지, 춘천역, 소양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춘천시의 경우 지리적인 내용과 연혁을 40행에 걸쳐 수록하고 있으나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서는 지명 변화의 나열적 소개에 그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변화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소속 동을 말미에 나열하고 있어 지리지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춘성군 항목의 내용 구성도 유사하다. 소양강의 경우 8줄에 걸쳐 서술되어 있으며 지명의 유래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⑥ 『한국의 지명 변천』(2006, 송호열 편, 국판, 1권, 960쪽, 여강출판사)

2006년 한국 지명의 내용을 정리한 사전으로 『세계지명유래사전』(2006)과 함께 출간되었다. 부록으로 남한의 특별시, 광역시, 도별 지도와 함께 북한의 행정구역지도(1944, 2005)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지명의 위치, 유형과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었다. 지명 표제어와 관련하여 「일러두기」에 ‘행정 지명의 경우 남한은 2006년 2월을 기준으로 법정면과 동 단위까지로 하였으며, 일부 법정동의 경우 위치 및 소속만 간략히 소개하고 행정동을 참조하였다.

북한 지명은 1945년 8월을 기준으로 한 시·군 지명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어서, ‘각 지방의 명칭 뿐만 아니라 각종 교과서 및 신문 등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지명을 망라하였다.’라고 언급하여 일정한 원칙에 의해 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명 표제어는 한글과 한자 지명을 부기하였다. 설명은 지명의 연혁과 행정구역 변천 과정과 함께 해당 지역의 주요 특산물과 중심 산업 내용을 담아 지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러두기」에서 밝힌바와 같이 출판사에서 제공된 지명 항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뚜렷한 편찬 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술의 내용도 제시된 참고 자료로 볼 때 기존에 인터넷 상의 지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⑦ 『지명대사전』(2004, 이민우 편, 국판, 1권, 1,342쪽, 연합뉴스)

2004년 언론 기사의 지명 표준화를 위해 연합뉴스에서 편찬한 지명사전이다. 편자인 이민우는 연합뉴스 논설위원을 역임하였다. 책의 제1부는 한국지명, 2부는 세계지명 일반 3부는 중국지명, 제4부는 일본지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도 채색으로 인쇄되었다.

「한국지명편」에서는 남한과 북한 지명을 함께 다루었다. 지명 표제어는 면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명과 주요 자연지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구·군·읍·면 이름 해설 말미에 소속 하위 행정구역 일람을 수록하였다. 구 지명에는 별도의 해설 없이 동명 일람만을 실었다. 인구와 면적은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 2003)을 수록하였다. 지명 해설은 기존 지명사전을 참고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명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북한 지명은 1945년 분단 이전의 지명과 이후 신설된 지명을 군 단위 이상만을 대상으로 수록하였다. 해설은 분단 이전의 내용을 위주로 했으며 자연지명도 분단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부록으로 북한의 1945년과 2003년의 행정 지명을 수록하였다

(2) 특수지명사전

가. 고지명 사전

① 『한국지명연혁고』(1961, 권상로, 국판, 1권, 497쪽, 동국문화사)

광복 이후 최초의 지명 사전으로 고지명의 현재 위치, 연혁, 지리적인 내용을 담은 사전이다. 저자인 권상로(權相老, 1879~1965)는 불교 승려로서 학계와 불교계에 걸쳐 널리 활동하였다. 본문 436쪽과 연표(年表)를 담은 부록(61쪽)이 별도의 쪽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고지명 항목이 1~338쪽에 2단 조판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339~436쪽에 『역대지리연혁일람표』, 『신라구주행정구역표』 등 12개 주제를 정리한 것을 부록으로 담았다.

지명 표제어는 사료에 수록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광복 후에 나타난 지명도 함께 수록하였다. 수록 항목은 약 3,000여개로 추정된다. 내용 구성은 서두에 현재의 위치를 약술하고, 지명 유형에 따라 원고 매수를 달리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항목의 경우 역사지리적인 변화, 지리지에 나타난 소속 군현, 지리적인 위치와 행정구역 내용을 거의 1쪽의 분량에 수록하였다.

‘춘천군’ 항목의 경우 서두에 ‘강원도에 있으니’라 하여 현재 위치를 서술하고, 역사적인 연혁과 지리적인 위치와 함께 말미에는 ‘광복후에 춘성군으로 고치다’라 하여 지명의 변천을 약 3/4쪽에 걸쳐 수록하였다. ‘춘천시’ 항목을 별도로 수록하여 ‘광복후에 춘천군을 춘성군으로 고치고, 춘천면만을 춘천시로 고치다’는 지명 연혁 내용을 3줄에 걸쳐 짧게 소개하고 있다. 관련 지명인 ‘춘성군(春城郡)’, ‘춘주(春州)’, ‘춘주도(春州道)’도 별도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부록은 한국 역사지리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담고 있다. 『부록 1』의 「역대지리연혁일람표」에서는 삼국시대, 남북조시대-고려-조선-현대까지 시대 변화에 따른 지명 변화를 도별로 정리하였다. 『부록 2-6』에서는 신라, 고려, 조선과 1895년과 1896년의 행정구역 지명이 정리되어 있다. 『부록 7~9』에서는 국명(國名), 팔도, 도별 감사의 이칭을 소개하였으며 『부록 10~11』에서는 진한·마한과 변한·진한의 위치 비정 내용을 담고 있다. 『부록 12』에서는 당시 부설된 철도선 역 이름과 이정표가 정리되어 있다. 『별치 부록』에서는 12간지 연표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의 연표가 비교 정리되어 있다.

② 『한국고지명사전』(1993, 전용신편, 이영택 추천, 4·6판, 1권, 452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지리지에 수록된 지명의 현재 위치, 연혁, 지리적인 내용을 담은 사전이다. 1993년 발행되었으며, 편저자인 전용신편(田濬新, 1921~)은 경성사범학교 연습과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재직하였으며 『(완역)일본서기』를 간행하였다. 수록된 표제어는 약 700여개로 추정된다. 표제어는 주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과 『대동여지도』(1861)에 나오는

지명에서 추출하였고 『삼국사기』 수록 지명으로 보완하였다. 이 중 『대동여지도』의 산천은 생략하였고, 고적 중 성은 생략하였다. 봉수는 일괄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역원 중 역은 본문에 수록하였지만, 원은 표로 제시하였다. 자료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택하였다.

서술 내용은 편찬 목적이 고지명의 현재 위치를 밝히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에서 간단히 서술되어 있다(예: 춘주 春州 강원도 춘천시의 옛이름). 그러나 ‘춘천시’ 등 시·군 지명은 위치에 의한 정의와 함께 연혁이 비교적 소상히 수록하고 별호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보다 먼저 나온 권상로의 『한국지명연혁고』와는 관방, 역원, 봉수를 새로이 수록한 점이다. 그 대신 각 군의 구체적인 진술(예를 들면 진고는 150m요, 동경 몇도, 몇분 몇초)은 생략하였다. 또 하나는 학자들의 연구를 많이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③ 『한국역사지명사전』(2008, 한국역사지명편찬위원회, 전자사전, 452쪽, 여강출판사)

고지명을 대상으로 이의 현재 위치와 내용을 전자 형태로 구축된 지명사전이다. DBPIA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제품소개」에 의하면 5,700여개의 표제어로 구성되며, 관련 이미지 500여 점을 수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명 설명은 이전의 고지명 사전의 수준을 넘고 있지 않다.

나. 산지·하천 지명 사전

① 『한국의 산지(山誌)』(1987, 한국측량학회, 4·6배판, 1권, 631쪽,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측량학회에서 2007년 남한에 소재한 산지를 대상으로 사전 형식으로 편찬한 책이다. 산지 항목 선정은 제1차로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공원지역의 산 44개를 1차로 선정하였고, 2차에서는 시·도의 추천 및 기존 명산 선정에 여러 차례 선정된 27개를 추가하였다. 3차에서는 선호도, 인지도 등 5가지 측성을 통해 29개 산을 추가하여 100대 명산을 선정하였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지리지에 수록된 산 지명을 종합하여 700개의 산이 사전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책의 구성은 제1장 『개관』에서는 한국의 산 개설과 편찬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16개의 산에 대해 지리지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700여개의 산에 대해 사전 형식으로 정보를 수록하였다. 부록으로 색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산명 찾아보기』와 함께 산지 이칭 색인집을 별도로 수록하고 시·도별 산명 목록을 첨부하였다.

서술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에 공원에 대해서는 개요(위치 및 규모·명칭 유래), 자연(지형·지질·기후·동식물), 인문(역사·문화유적·전설·주민생활·관광과 명승지), 관련자료(문학작품·지리지 및 고지도, 그림), 관련 문헌 목록으로 구성하여 지역지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산 지명 사전에서는 명칭, 위치 및 규모, 특징과 고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항목을 표준화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지명 중 산을 중심으로 편찬된 주제별 사전이다. 국립공원과 일반 산을 구분함으로써 서술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편찬 설계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산지 선정에서 일부 고을의 진산이 누락되어 있다.

② 『한국하천지명사전』(2011, 한국하천협회, 4·6배판, 1권, 759쪽, 국토교통부)

한국하천협회에서 하천 지명만을 대상으로 편찬한 사전이다. 수록 항목은 『한국하천일람』(2009)에 수록된 3,833개 지명을 바탕으로, 중복과 이칭 지명 등을 조정하며 총 3,782개, 이칭 지명 418개가 표제어로 설정되었다. 배치 순서는 권역·수계별로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나누어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수계 지명과 동일한 하천은 제일 앞에 배치하였다. 수계의 순서는 『한국하천일람』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수계로 분리하였다.

표제어 구성은 지명, 한자, 로마자표기, 하천코드, 이칭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한자 표기는 『한국하천조사서』(1992)를 기준으로 하였다. 로마자 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의 『로마자표기용례』(2000)에 준하였다. 이칭의 경우 전부 수록하였으며 관련 지명에 대해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였다.

항목의 내용은 하천 소재지, 유로 연장, 유역 면적, 유로를 비롯하여 지명의 내용과 유래, 지명에 얽힌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하천 소재지는 종점을 기준으로, 유로 및 유역 면적의 통계는 『한국하천일람』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명 유래는 고지도와 지리지 등을 중심으로 하고 관련 문헌과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지명별 원고 매수는 특정 하천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사전에 수록된 지도는 하천유역도와 조선시대 군현지도, 일제강점기 초기에 제작된 조선지형도를 이용하여 수록하였다. 인용에 이용된 고지도와 지리지의 일부는 약어로 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명 편찬사에서 볼때 이 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는 전문사전으로서의 기능이다. 대부분의 지명 사전이 지역 사전의 내용을 담아 종합적인 반면 이 사전은 하천 지명만을 대상으로 편찬됨으로서 지리 전문 용어 사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둘째로는 하천지명 유래의 설명에서 이전 지명사전과는 다르게 지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각 수계 권역의 서두에 수계망 지도를 지도를 수록하여 하천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고, 서술에서는 지명이 수록된 지도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3) 북한 지명 사전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선전의 도구로 지명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언어정책의 일환으로 지명관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60년대 이후는 주체사상이 반영된 사회주의 지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지명은 남한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되었다. 1966년 전국 지명조사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47만 여개의 지명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국지명조사보고서』(1967)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지명정책의 기초자료와 지명사전 편찬에 활용하였다.

북한에서 지명사전은 1980년대부터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본격적인 지명사전은 2000년대 간행된 『조선지명편람』과 『고장이름사전』으로 이들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1960년대 지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명 이론서로는 2000년대 들어 『조선어학전서』 편찬의 일환으로 『조선어명칭론』, 『조선지명변천에 대한 역사문헌학적 연구』, 『조선지명학』, 『조선지명 연구』의 4권의 책을 발행하였다. 북한 지명이 부분적으로 수록된 백과사전은 『조선향토대백과』이며, 이는 남한의 북한 관련 연구소에서 출판되었다.

① 사전 편찬 동향

표 5는 북한에서 편찬이 확인된 지명사전 목록으로 대부분 1980년대 이후 발행되었다. 『고장이름유래집』(1986)은 행정구역과 관련된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반 참고서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지명의 유래를 역사적으로 밝힌 편람으로 옛부터 유래된 것은 역사적 변천 내용을 다루었으며 합성 지명의 바탕이 된 기초 지명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또한 김일성이 명명한 지명에 대해서도 근거를 소개하고 있다.

표 5. 북한 지명 사전

연도	사전 표제	저자수	권수
1986	『고장이름유래집』	김봉환외 5명	미상
1992	『고장이름변천역사』	김봉환	미상
1995	『조선지명사전』	박태훈 등	510쪽
1998	『지명이야기』	미상	11권
1998	『남조선지명』	미상	5권
1999	『조선지명유래전자사전』	리성남 · 윤광현	미상
2000	『고장이름사전』	117명	10권
2002	『조선지명편람』	10명	10권
2004	『조선향토대백과』(백과사전)	약 1,000명	20권

『고장이름변천역사』(1992)는 고장 이름을 지명의 구조와 조성 수단 및 수법, 표기 방식 등 국어 음운 변화사와 관련하여 서술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지명이야기』(1998)와 『남조선지명』(1998)은 북한의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간행된 책이다.(박재수, 1999, 307~308) 한편 『조선지명 유래전자사전』(1999)은 『조선지명사전』(1995)를 이용하여 구축한 전자 사전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향토대백과』(2004)의 시군별로 편제된 백과 사전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지리지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남한 연구소에서 발행되었다. 이 중 일부의 지명 항목에는 『고장이름사전』의 내용이 전재되어 있으며, 북한 학자들이 서술하였다고 소개되어 있다. 지명외에 북한의 백과 사전 내용을 종합하였고, 이에 따라 책에는 각 시·군의 지명뿐만 아니라 향토 관련 항목들이 함께 백과사전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형식은 남한의 『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과 유사하다.

② 사전의 체제와 내용 구성

『고장이름사전』(2000-2002, 정순기 외, 4·6배판, 10권, 각권 500쪽 내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지명편람』(2001-2002, 방린봉 외, 4·6배판, 10권, 각권 600쪽 내외, 사회과학출판사)

『고장이름사전』은 1960년대 지명 조사 결과물인 『전국지명조사보고서』(1967)을 기본으로 하였다.(박재수, 1999) 약 30만개의 지명의 유래를 담고 있으며 행정지명을 포함하여 자연지명, 고지명(古地名)까지 수록하고 있다. 전체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수는 4,592쪽에 달한다. 도별 분량은 평안북도가 631쪽으로 가장 많으며 자강도가 235쪽이다. 발행일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000년~2002년이다. 10권 모두 정순기가 편찬책임을 맡고 있으며 지역별로 집필 책임자가 소개되어 있다. 지명 항목은 도-시·군-리별 행정과 자연지명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북한에서 ‘리’는 남한의 면에 해당된다.

『조선지명편람』(2002)은 『조선어학전서』(총 65권)의 편찬의 일환으로 간행된 것으로 제7부 중 제54~64권에 해당된다. 각 책의 쪽수는 394쪽~695쪽에 달한다. 각 책의 발행일은 2001년 1월~2002년 6월이다. 참여 인력은 집필과 심사, 교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명 항목은 도별 가나다 순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들 책에 수록된 지명 유래 설명에 이용된 사료는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 후기의 『대동지지』 등을 이용하고 있다. 고지도의 경우 『대동여지도』를 제외하고는 언급이 없다. 일제강점기의 경우 주로 『신구대조』(1917)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표 6. (평양) ‘경상동’ 항목 내용 비교

<p>경상동(慶上洞) 구역의 북동쪽 대동강기슭에 있는 동. 리조말기에는 평안남도 평양부 대흥면의 한 리였다. 경상골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라 하여 《경상동》이라 하였다. 주체35(1946)년에 평양특별시 중구 경상리, 주체41(1952)년 중구역 경상리, 주체44(1955)년에 중구역 경상동으로 되었다. 경상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려차례 현지지도를 하신 영광의 고장이다. 동에는 모란봉, 룡라도, 청년공원 등 공원, 유원지들이 있으며 평양성과 영명사터, 부벽루, 을밀대, 청류정, 전금문, 현무문, 칠성문 등 유적들이 있다. 또한 옥류농수버들, 청류벽회화나무, 룡라도산벚나무와 전나무, 룡라도수양버들 등 천연기념물들과 옥류약수터가 있다. (『고장이름사전』, 평양시·남포시편 32쪽)</p>
<p>경상동(景上洞) 구역의 동북쪽에 있는 동. 리조말에는 평안남도 평양부 대흥면의 경상동이었다. 경사스럽게 을밀봉으로 오르는 첫 어구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경상동》이라 하였다. 주체 35(1946)년 9월 리문리, 경제리, 신창리가 편입되어 평양특별시 중구 경상리로 되었으며, 주체 41(1952)년 12월에는 중구역 경상리로, 주체 44(1955)년 2월에는 룡라도와 사창동 일부지역이 편입되어 중구역 경상동이 되었다. 주체48(1959년) 9월 사창동이 편입되었다(『조선지명편람』, 평양직할시편, 49쪽)</p>
<p>경상동(慶上洞) 평양시 중구역 21동의 하나. 구역의 북동쪽 대동강기슭에 있는 동. 본래 평안남도 평양부 대흥면 지역으로서 경상골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라 하여 경상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평안남도 평양부 경제리에 편입하였고, 1946년에 평양특별시 중구 경상리로 되면서 평안남도 평양부 신창리, 리문리, 경제리, 차관리, 엄점리등 지역을 흡수하였으며, 1952년에 중구가 중구역으로 되면서 중구역 경상리로 되었다. 1955년에 동제의 실시에 따라 중구역 경상동으로 되면서 중구역 룡라도와 문수리를 편입하였고, 1959년에 중구역 사창동이 편입되었으며, 1965년에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중구역 경림동 일부와 병합하여 대동문동을 신설하였다.(『조선향토대백과』, 평양직할시편, 425쪽)</p>

표 6은 평양직할시 중구역에 소재한 경상동을 사례로 『고장이름사전』, 『조선지명편람』, 『조선향토대백과』에서 서술된 내용이다. 『고장이름사전』에서 수록 내용은 위치정보, 지명유래, 연혁, 김일성 관련 내용, 유적 및 지리의 내용 순서이다. 『조선지명편람』의 경우 위치, 지명유래와 연혁을, 『조선향토대백과』는 행정구역, 위치 정보, 지명유래, 연혁 순이다. 이들 책에서 지명 설명 체계에서 위치정보, 지명유래, 연혁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내용과 김일성 관련 내용은 『고장이름사전』에서만 수록되어 있다. 유래의 설명에서는 『조선지명편람』이 다른 책과는 다르게 되어 있으며 한자 표기도 다르다. 이를 볼때 『조선향토대백과』는 『고장이름사전』을 바탕으로 편집되었으며, 『조선지명편람』은 기존의 자료를 상당 부분 편집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주요 지명 사전 내용 비교

표 7은 지명 사전 중 남한의 『한국지명총람』(이하 ‘총람’), 『한국지명유래집』(이하 ‘유래집’)과 북한의 『고장이름사전』(이하 ‘고장’)의 내용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이들 책은 공통적으로 시군별로 편제하고, 지명 배치는 행정구역 내에서 가나다 순을 이용하여 배치되어 있다. 고지명과 이칭은 수록 방법만 다를 뿐 대부분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연도 표시 형식은 차이가 있으나 재위년을 함께 병기하고 있다. 『고장』의 경우 주체 년도를 이용하였다. 항목 서술에서 행정지명 내용의 구성은 이칭, 위치, 연혁, 지리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유래집』의 경우 사료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장』의 경우 사회주의 찬양 내용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표 7. 주요 지명 사전 내용 비교

		『한국지명총람』	『한국지명유래집』 (남한·북한편)	(북한)『고장이름사전』
발행연도		1966~1986(21년)	2008~2013(6년)	2000~2002(3년)
권·책수(편제)		18권 20책(도별)	5권 6책(지역별)	10권 10책(도별)
편제		도·시·군 가나다순	도·시군별 행정위계순	도·시군별
고지명		표제어 정의에 수록	본문 속 이칭 수록	항목으로 수록
연도표시		· 태종 13년(1413년) · 1914년	· 1413년(태종 13) · 1914년	· 태종13년(1413년) · 주체41(1952년)
행정지명 항목 내용 구성(사례: 춘천시·원산부)		(35행) 고지명(1)-행정위계 (1)-연혁(31)-위치(2)	(52행)한글·한자·로마자·이칭 (3)-정의(1)-지명유래(3)-사료에 서의 지명 수록 및 역사지리 (25)-연혁(10)-지리(10)	정의(1)-위치(1)-지명 변천 (2)-연혁(약 65)-사회주의 찬양(15)
인용 지리지	조선	없음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 『읍지』 등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일제	없음	『조선지리지』 『신구대조』	없음
인용 고지도 (조선·일제)		군현지도·도별도(각도) 사적지 사진 수록	조선전도, 군현지도, 『청구도』· 『대동여지도』·『조선지형도』	『대동여지도』
지도 이미지		시군별 도입부에 군현지도 이미지 삽입	도입부 : 지형도 및 도 위치도 본문 : 해당 지명 기재 고지도	도 지형도

2) 『조선향토대백과』의 「편찬경위」에 보면 『고장이름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남한에서 편찬되기 위해 상당 부분이 재 편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사전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지리지와 고지도의 사용과 지도 이미지 수록 여부이다. 『총람』의 경우 서술에서 지리지와 지도 인용은 거의 없으며, 단지 시·군별 도입부에 군현지도와 사진 이미지를 수록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고장』에서는 지리지의 경우 『삼국사기』,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지도의 경우 『대동여지도』만을 이용할 뿐이다. 각 도의 도입부에는 현대 지형도를 수록하였다. 이에 반해 『유래집』의 경우 지리지와 고지도를 폭넓게 인용하고 있으며, 지명 항목 서술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고지도의 부분 이미지를 수록하고 있다. 각 시·군별 도입부에는 현대 지형도를 수록하여 다른 지명사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4. 한국 지명 DB와 강원도 지명

광복 이후 남한 지명은 한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지도가 제작되면서 표준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미군에 의해 지도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표기는 미국의 맥쿤·라이샤워(McCune-Reishawer)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기재되어 한국전쟁 당시 공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큰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후 1957년에 지명의 기재와 로마자 표기의 표준화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산하에 지리연구소를 설치하여 중앙지명위원회를 두었다. 1958년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각 지방에 지명제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1년에는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2만 여개의 지명이 고시되었다.

1) 한국의 지명관리와 DB

현재 남한에서는 지명 표준화를 고시 지명을 국가의 발행지도에 표기함으로써 지명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명 관리는 표 8과 같이 여러 법률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지명 유형에 따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담당 부처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리되어 있다.

표 8. 우리나라 지명 관리 기관 및 법률

지명 분류	지명 유형	관련 법률	관리 부처
자연지명	산지, 고개·도서 등	측량법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해양·해저지명	수로업무법	해양수산부(해양수산개발원)
	하천 지명	하천법	국토교통부
인문지명	행정지명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
	군사관련 지명	군사시설보호법	국방부
	도로지명	도로법	국토교통부
	산림관련 지명	산림법	농림부
	공원 지명	자연공원법	환경부
기타 지명	이하 개별 법률	해당 소관 부처	

자연적으로 형성된 장소의 이름 중 강·포구·고개·골·곶·나루·산 등의 지명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해양·해협·만·포·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해구 등 해저지형의 지명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한다. 소관이다. 행정단위(시·군·읍·면·동 또는 마을)의 이름인 행정지명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한다.

하천 지명은 국가하천의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지방하천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명칭 및 구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명이 변경될 경우 관할 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이때 하나의 하천을 2개의 지명으로 지정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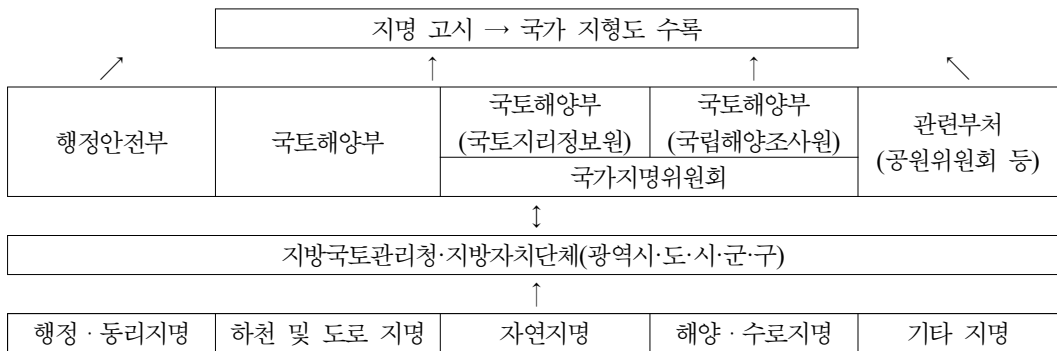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지명 정비 체계

이들 지명의 관리와 정비 내용은 해당 부처에서 구축된 DB로 관리된다. 지명 정비의 과정은 해당 법률과 관리 주체에 따라 ‘시·군·구지명위원회에서 제정→시·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고시→지도에 표기’ 순서로 지명을 정하거나 바꾼다. 각 시·군은 지명위원회를 두고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 수집과 분석, 그외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해, 시·도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고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지명을 고시하고 지도에 표기한다. 자연지명을 제외한 행정지명이나 해양지명, 인공 지명은 각 관련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바꾸거나 수정하고 표기한 뒤 이것을 정보 제공차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공해 주면 국가 기본도에 표기하게 된다.

표 9는 2013년 기준으로 각 부처에서 구축된 지명 DB를 통합하여 유형별로 정리된 우리나라 지명 분포 현황이다. 총 150,072개의 지명 중 마을 지명이 78,000여개로 가장 많다. 하천 지명이 26,000여개로 이중 대부분의 지명은 소하천 이름이다. 자연 지명은 17,500여개에 해당되며 이중 -산, -봉, -오름 등의 산지 지명이 9,000여개를 차지한다. 행정 지명 중 동·리 지명은 19,900여개를 차지한다.

시도별 전체에서 각 지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연마을의 경우 시 지역을 제외하면 충청남도(56.7%), 전라북도(55.5%)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산지 지명은 제주도가 22.2%로 이들은 대부분 오름 지명이다. 고개, 계곡 등의 지명은 강원도(8.1%)에서 가장 높고, 하천 지명도 강원도(20.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양지명은 전라남도과 제주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강원도는 0.1%에 불과하다. 교통 지명도 경기도를 제외하고 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표 9. 한국의 지명 유형의 광역시·도별 분포(도로지명 제외)*

	행정1	행정2	행정3	마을	자연1	자연2	하천1	하천2	해양	교통	총합계
서울특별시	26	-	732	447	66	30	55	16	-	605	1,977
인천광역시	11	27	342	840	99	78	155	72	167	11	1,802
경기도	52	149	2,257	8,010	899	683	2,628	115	62	149	15,004
강원도	19	126	1,360	6,797	1,022	1,073	2,765	74	11	70	13,317
대전광역시	6		198	777	81	122	112	17	-	20	1,333
충청남도	18	163	2,111	9,505	793	937	2,882	122	195	45	16,771
세종시	1	10	139	484	33	39	-	7	-	-	713
충청북도	15	102	1,526	6,383	603	604	2,249	62	-	41	11,585
대구광역시	9	11	368	777	102	87	158	21	1	61	1,595
경상북도	27	250	3,120	12,823	1,189	1,276	4,043	150	28	98	23,004
부산광역시	17	5	361	563	154	115	74	48	71	147	1,555
울산광역시	6	12	207	841	90	125	237	19	22	10	1,569
경상남도	24	206	2,251	9,021	1,191	1,121	3,677	226	463	42	18,222
광주광역시	6		262	645	88	123	51			29	1,204
전라남도	23	253	2,783	11,352	1,396	1,269	4,292	373	1,731	53	23,525
전라북도	17	161	1,736	8,469	877	877	2,968	43	81	40	15,269
제주도	3	12	209	795	361	28	142	1	76		1,627
총계	280	1,487	19,962	78,529	9,044	8,587	26,488	1,366	2,908	1,421	150,072

[지명 분류]

행정1: -광역시·도, 자치시, -시·군·구·행정구, 행정2: -읍·면·출장소, 행정3: -동·리

마을 : -마을

자연1: (산지) -산, -봉, -산지, -오름, -산성

자연2: (기타) -고개·-골, -곡, -평야, -벌, -바위, -숲

하천1: (국가 지방·소하천) -강, -천, -내

하천2: (하천 관련) -나루터, -하중도, -약수, -샘, -저습지, -은천

해양 : -섬, -만, -포구, -곶, -등대, -해수욕장, -갯벌, -바위(해양), -해(협)

교통 : 도시철도, 철도역, 터널 지명

*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행정지명), 국토지리정보원(자연지명·마을·도서·해안), 국토교통부(하천), 교통공사 및 코레일(교통·철도역)의 지명 DB를 바탕으로 2014년에 필자가 정리한 것임.

표 10. 강원도 지명의 시·군별 분포

	지명수	면적 및 밀도		지명 유형								
		면적 (km ²)	지명 밀도	행정2	행정3	마을	자연1	자연2	하천1	하천2	해양	교통
총합계	13,297	16,875	78.8	125	1,360	6,797	1,022	1,081	2,765	66	11	70
[영서 지방]												
춘천시	1,107	1,116	99.2	10	112	493	77	97	294	18	-	6
원주시	1,070	868	123.3	9	85	623	61	60	216	6	-	10
홍천군	1,455	1,820	79.9	10	105	759	113	131	327	10	-	-
횡성군	1,030	998	103.2	9	110	605	59	92	154	1	-	-
영월군	1,015	1,128	90.0	10	57	610	62	68	184	17	-	7
평창군	1,018	1,464	69.5	9	89	534	91	77	217	1	-	-
정선군	938	1,220	76.9	10	59	485	112	64	191	4	-	13
철원군	517	889	58.2	12	80	256	28	19	122	-	-	-
화천군	548	909	60.3	5	40	243	37	54	164	5	-	-
양구군	472	707	66.8	5	60	186	20	38	161	-	-	2
인제군	687	1,645	41.8	7	42	347	70	59	162	-	-	-
[영동 지방]												
강릉시	925	1,040	88.9	8	107	508	98	89	108	2	1	4
동해시	219	180	121.7	-	39	102	16	25	31	-	-	6
태백시	214	303	70.6	-	23	106	16	13	48	-	-	8
속초시	111	106	104.7	-	15	34	9	14	38	1	-	-
삼척시	1,030	1,187	86.8	9	129	509	67	95	206	1	1	13
고성군	359	664	54.1	6	88	105	35	34	84	-	6	1
양양군	582	630	92.4	6	120	292	51	52	58	-	3	-

표 10은 강원도의 시군별 지명의 분포이다. 총 지명수는 도·시·군 지명을 제외하면 13,297개가 고시되어 있다. 지명의 분포를 단위 면적당 환산하면 평균 79개/km²이다. 지명 밀도에서 평균 이하의 지역을 보면 인제군(41.8)이 가장 낮고, 고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으로 이들은 모두 DMZ와 접경지역에 속한 지역들이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주민 거주가 제한되면서 지명의 숫자도 적어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명 유형 중 하천 지명은 대부분 영서 지방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해양 지명은 모두 11곳으로 영동지방이 고성군과 양양군에 각각 6곳과 3곳에 분포한다. 교통 지명은 영서지방에서는 정선군에, 영동에서는 삼척시에 많이 분포한다.

이와 같이 DB에서 구축된 지명은 실제의 강원도 지명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 지명의 경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실체는 없이 지명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접경 지역도 DMZ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자연(산지)과 하천 지명에서는 지명은 있으나 고시가 안된 장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해양의 섬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명은 자연을 인간화하여 표상한 기호일 뿐이다. 더군다나 고시 지명은 국가 관리 대상 뿐으로 지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명이 누락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 실체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두에서 설명된 지명의 자의성에 해당된다. 이는 지명의 관리가 중앙정부 DB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단체 주관으로 지명 항목이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강원도 지명사전 편찬 동향

강원도 지명은 도와 각 시군이 주관하여 정리를 시도하였으며, 이들은 지명 사전뿐만 아니라 시지나 군지에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표 11은 강원도에서 편찬한 지명사전이다.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은 1997년 한국 토지공사에서 발행한 『강원도 땅 이름』이 유일하게 확인되었다. 총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의 강원도 개관에서는 강원도의 역사지리, 자연 및 인문환경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제2장의 강원도 지명편에서는 강원도 2,300여개의 지명을 유형과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수록하였다.

지명은 행정지명의 경우 시·군, 읍·면과 동·리 지명을 수록하였고, 접경 지역에 속하여 유래가 불확실한 지명은 미거주 지역임을 표시하였다. 자연 지명 중 산지, 하천, 사찰 및 기타 지명은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시군별 행정 지명을 정리하였고, 제 4장은 색인에 해당된다.

지명 내용 구성에서 표제어는 한글지명과 함께 한자를 괄호어에 기재하였다. 지명의 위치 정의는 한자로 간단히 서술하였다(예, 나안동(羅雁洞) 東海市 所在. 예전에는...). 유래 서술에서 지리지는 거의 인용되지 않았으며, 춘천시를 비롯한 행정 지명의 경우도 지명 변화 내용은 거의 서술되지 않았다.

표 11. 강원도 시·군별지명사전 편찬 동향

시 군		서 지 내 용
강원도		한국토지공사, 1997, 『강원도 땅이름』.
시	춘천시	춘천문화원, 1995, 『춘천의 지명유래』.
	강릉시	김기철, 1997, 『강릉지명유래』, 인혜사.
	동해시	동해문화원, 2000, 『동해시 지명지』.
	원주시	원주시, 1999, 『원주의 지명 유래』.
	속초시	속초문화원, 1990, 『속초의 지명』.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2, 『속초의 옛 땅이름』.
	태백시	김강산, 1989, 『태백의 지명유래』, 태백문화원.
군	삼척군	삼척문화원, 1994, 『삼척군 지명유래지』.
	양구군	양구문화원, 1994, 『양구의 지명』.
	양양군	양양문화원, 1995, 『양양의 땅이름』.
	영월군	엄홍용, 1996,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대흥기획.
	인제군	인제문화원, 2003,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정선군	정선문화원, 1997, 『정선의 옛 지명』.
	정선군	진용선, 2006, 『동강유역의 지명유래』, 정선아라리문화연구소.
	정선군	진용선, 1996, 『신동읍 지명유래』, 정선아라리문화연구소.
	철원군	철원문화원, 2005, 『철원의 지명 유래』.
	평창군	평창문화원, 2000, 『평창군 지명유래』.
	화천군	화천문화원, 1997, 『화천의 지명』.
	횡성군	이영식, 2001,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 홍천군, 고성군 누락

시·군에서 주관하여 편찬된 지명사전은 19권의 사전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지방문화원에서 주관하여 편찬되었다. 시급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1권씩 발행되었고, 속초시는 1990년과 2002년에 걸쳐 간행되었다. 군 지역의 경우 대부분 1권이나 정선군의 경우 3권이 간행되었다. 홍천군과 고성군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전이 편찬 시기는 대부분 1990년대이며 가장 최근의 사전은 철원군에서 2005년에 발행한 지명유래집이다.

5. 맺음말 : 강원도 지명 사전의 편찬 방향 제언

지명은 단순한 기호로 보이나 여기에 담긴 언어 텍스트는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이 살아온 생활공간의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또한 일상을 지배한다. 역사성과 장소성이 종합적용 담겨

있는 지역의 지명을 대상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지난(至難)한 일이며 누구의 희생없이 좋은 사전을 만들 수 없다. 또한 편찬된 지명사전은 당시대의 모든 것을 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지금의 생활 공간을 이해하는데 일차적인 자료이다. 이 때문에 지명사전은 학계의 연구와 충실한 지명 DB의 구축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명 사전 편찬 사업에서 요구되는 방향은 ① 진정성 ② 표준화와 다양성의 조화 ③ 편찬과정의 효율성 ④ 외연 확장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진정성(authenticity)**은 사전 편찬 목적이 뚜렷하고 정확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한 일과성 정책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가 지닌 역사성,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과거 예맥국의 중심으로서 때로는 고구려와 신라 영토로서, 지리적으로는 영동과 영서의 분리, 현대 정치사에서 DMZ로 인한 남북 분단, 또한 동해 바다에 대한 시선과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지명사전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2. **표준화와 다양성(diversity with standardization)**은 사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표준화된 형식과 동시에 강원도의 지역성(locality)이 담겨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성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지리지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역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현장성이 요구된다. 사전에는 표준화된 형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함께 담길 때 살아 있는 지명사전이 될 수 있다. 어려운 현장 조사를 어떻게 효율성있게 진행하여 그 내용을 사전에 담을 수 있는가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3. **확장성(expandability)**은 사업 결과물인 DB가 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전 항목 구축에서 필요한 표준화는, 결과물이 단순히 책(hardcopy)으로 구현될 뿐 아니라 디지털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책으로 구현될 경우 지역별 혹은 주제별 편제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동시에 다음의 세대에서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4. **효율성(efficiency)**은 지명 사전 편찬의 주체가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명 사전 편찬은 어려운 일이며 컨트롤타워의 치밀한 기획 능력이 요구된다. 표준화와 현장성을 함께 담아 내려 할때 생겨날 수 있는 갈등과 이의 타협을 이끌어 내는 조화는 사전 편찬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참고문헌】

(출처: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중 강원도)

1) 논문 및 단행본

강원도, 1995, 『강원도사』.

강원도, 2005, 『국역 강원도지』.

강원도, 2006-2008, 『관동지』.

강원문화연구소, 1997, 『완역 척주집』, 삼척문화원.

고성문화원, 1998, 『우리고장의 지명유래』.

길민자, 1976, 『강원도 지방의 산이름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강산, 1989, 『태백의 지명유래』, 태백문화원.

김기설, 1997, 『강릉지명유래』, 인쇄사.

김도현, 1997, 역대 지리지의 삼척군 서술에 대한 일고찰, 『강원문화연구』, 2, 강원향토문화연구회.

김성찬 역주, 2003, 『원주지』.

김옥자, 1992,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 홍천군과 양양군속초시를 중심으로』, 강원대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동해문화원, 2000, 『동해시 지명지』.

문은경·노미경, 1994, 강원도 정선군의 지명에 관한 연구 : 촌락명을 중심으로, 『지역환경』 12.

박성종, 2002a, 동해시 지명지 편찬과정과 지명조사 방법론, 『동해문화』 3.

삼척문화원, 1994, 『삼척군 지명유래지』.

성광수, 1980, 영동지방 지명에 대한 어원론적 연구, 『구비문학』 4.

속초문화원, 1990,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2001, 『옛 문헌 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2, 『속초의 옛 땅이름』.

손주일, 2000, 춘천 지역 지명 접미사에 대한 어휘론적 연구, 『강원논총』 8.

심보경, 2003, 강원도 지명 연구의 동향과 과제-강원영서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 8.

양구문화원, 1994, 『양구의 지명』.

양양군, 1990, 『양주지』.

양양문화원, 1995, 『양양의 땅이름』.

엄흥용, 1996,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대흥기획.

오영교 편, 2000, 『원주학 사료총서』,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원주시, 1999, 『원주의 지명 유래』.

원주시, 2003, 『원주지』.

이영식, 2001,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 이인석, 1987,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 땅이름 연구, 『방언학 연구 논문집』, 홍문각.
- 이학원·정장호, 1996,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3) : 원주시와 횡성군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제15집.
- 인제군, 1996, 『인제읍지』.
- 인제문화원, 2003,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 정선군, 2001, 『정선의 향사 : 내고장 전통 가꾸기』.
- 정선문화원, 1997, 『정선의 옛 지명』.
- 정장호, 1993,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1) : 영월군과 삼척시군 및 태백시를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12.
- 정장호, 1994,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2) : 정선군·평창군과 강릉시·동해시 및 명주군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13.
- 정장호, 1998,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4) : 양구군·인제군 및 고성군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17.
- 정향교, 1998, 『완역 증수임영지』, 강릉문화원.
- 진용선, 1996, 『신동읍 지명유래』, 정선아라리문화연구소.
- 진용선, 2006, 『동강유역의 지명유래』, 정선아라리문화연구소.
- 철원문화원, 2005, 『철원의 지명 유래』.
- 춘성군, 1981, 『춘성의 맥』.
- 춘성군교육청, 1968, 『춘성군 향토지』.
- 춘천문화원, 1992, 『춘천향토자료집』.
- 춘천문화원, 1995, 『춘천의 지명유래』.
- 춘천시, 1982, 『소양의 맥』.
- 춘천시, 1996, 『춘천시 백년사』.
- 평창문화원, 2000, 『평창군 지명유래』.
- 한국토지공사, 1997, 『강원도 땅이름』.
- 홍천교육청, 1995, 『너브내의 숨결』, 강원도 홍천 교육청.
- 홍천문화원, 1992, 『우리 고장 홍천』.
- 화천군 사내면, 1997, 『우리고장의 유래』.
- 화천문화원, 1997, 『화천의 지명』.

1

강원도 지명의 연구성과와 방향

심 보 경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2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지명연구

김 무 림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3

서울지명사전 편찬을 통해 본 시사점

이 상 배

서울역사편찬원장

강원도 지명의 연구성과와 방향

심 보 경 /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목 차

- | | |
|----------------|----------------|
| 1. 문제제기 | 3. 강원도 지명연구 방향 |
| 2. 강원도 지명연구 현황 | 4. 결론 |

1.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지명연구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강원도 지명연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강원도 지명연구의 효율적인 방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지명은 한국인의 삶의 공간에 공간정보와 인문학적 정보 등이 내재되어 있는 고유명사로서, 이 언어에는 역사성과 지역성, 전수성과 보수성 등이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강원도 지명에는 강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정보, 지역어가 반영되어 있어 강원도의 자연지명, 행정지명, 법정지명, 인공지명 등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지명어가 어떻게 생성, 변이, 소멸되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명은 지역인의 거주 공간에 삶의 언어 코드가 반영된 언어문화재로서, 한국학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다.

지명은 융합적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부터 전문 연구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학문 분야에서도 국어학, 역사학, 지리학, 민속학, 문학, 행정학, 지역학 등 연구범위와 대상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동안 지명 연구는 각 학문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지만 이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어학계에서는 지명어의 언어 내적 정보 및 형태적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역사학계에서는 문헌자료 및 사료 정리를 바탕으로 고증되었으며, 민속학계에서는 지명설화나 지명유래를 중심으로, 지리학계에서는 고지도 연구 및 지명의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학문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지명연구에 대한 연구성과는 지명의 복잡한 융합적 특성,

지명연구에 대한 미온적 학문적 풍토 등의 정황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단발적, 일시적 연구로 진행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지명연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는 지명연구의 학문적 연구시스템을 재고하게 한다. 지명연구를 위해서는 고문헌과 고지도 등 문헌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지식, 지명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조사, 문헌자료 및 고지도, 현장채록지명에 대한 체계적인 지명어휘 DB가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폭넓은 학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지명연구를 위해서는 개인 연구자의 연구역량 제고 및 관련 학문 연구자 간에 연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명연구 공동시스템 구축, 장기적 목표로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 아래 안정된 지명 관련 제반 시스템과 공동연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면 이것은 강원도 지명연구 및 강원도 지명사전 편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명연구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강원도 지명연구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강원도 지명연구 현황

2.1. 강원도 지명 관련 자료집 연구 현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리지와 역사자료, 고지도는 강원도 지역의 지명을 검토하는 핵심자료가 된다.<표1> 참조) 고지도와 지리지, 고문헌 사료는 과거에 존재했던 지역의 모습과 지명, 지역의 범위를 보여주는 지명 자료이다. 이것은 당대의 중요했던 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 고지명이 사라진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다음은 강원도 지명 관련 자료집 목록이다.

〈표1〉 강원도 지명 관련 총괄 자료집

지역	강원도 지명 총괄 자료집
지리지와 역사자료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호구총수』, 『여지도서』, 『읍지』, 『조선지리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조선 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지도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지방군현도>, <청구도>, <대동여지도>, <조선지형도(1:50,000)>, <1:250,000 지세도(국토지리정보원)>

지역	강원도 지명 총괄 자료집
강원도 지명 관련 총괄자료	<p>江原道, 1995, 『江原道史』, 江原道.</p> <p>江原道, 1995, 『朝鮮王朝實錄 江原道史料集』, 江原道.</p> <p>江原道, 2005, 『國譯 江原道誌』, 江原道.</p> <p>江原道, 2006-2008, 『關東誌』.</p> <p>江原道 道誌刊行委員會, 1940, 『江原道誌』 1-2, 『韓國近代道誌』 22-23, 韓國人文科學院.</p> <p>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韓國地名要覽』.</p> <p>국립중앙도서관 편, 『朝鮮地誌資料 江原道』 1-4.</p> <p>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편, 2008,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p> <p>김홍삼 편,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색인집 : 《朝鮮地誌資料》江原道 篇』, 景仁文化社.</p> <p>대한지리학회 편, 2006, 『강원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p> <p>서울大學校 奎章閣 편, 1997, 규장각 자료총서 지리지 『江原道邑誌』, 서울大學校 奎章閣.</p> <p>신종원 편, 2007,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朝鮮地誌資料》江原道 篇』, 景仁文化社.</p> <p>田溶新, 1995, 『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p> <p>한국토지공사, 1997, 『강원도 땅이름』.</p> <p>한글학회, 1982, 『한국지명총람』 2 강원편, 한글학회.</p> <p>한글학회, 1992, 『한국 땅이름 큰 사전』, 한글학회.</p>

강원도 지명 관련 주요 고문헌 자료로는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호구총수』, 『여지도서』, 『읍지』, 『조선지리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조선 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등이 있으며, 주요 고지도 자료로는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지방군현도>, <청구도>, <대동여지도>, <조선지형도(1:50,000)>, <1:250,000 지세도(국토지리정보원)> 등이 있다.

강원도 지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韓國地名要覽』(1982), 『朝鮮地誌資料』(1911), 『한국지명총람』(1982),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2008) 등이 있다. 『江陵市史』(1996), 『高城郡誌』(1995), 『東海市史』(2000), 『三陟郡誌』(1984), 『東草市史』(1991), 『楊口郡誌』(1984), 『襄州誌』(1990), 『寧越郡誌』(1992), 『原州誌』(2003), 『麟蹄郡誌』(1980), 『旌善郡誌』(2004), 『鐵原郡誌』(1992), 『春州誌』(1984), 『太白市誌』(1998), 『平昌郡誌』(1979), 『洪川郡誌』(1989), 『華川郡誌』(1988), 『橫城郡誌』(2001) 등은 강원도 각 지역의 역사정보 및 지명 유래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2〉 강원도 지명 관련 지역별 자료집¹⁾

지역	강원도 지명 관련 자료집
강릉(江陵)	江陵市, 1996, 『江陵市史』. 김기설, 1997, 『강릉지명유래』, 인해사. 박도식 편저, 2002, 『江陵市實錄資料集』, 강릉문화원. 鄭允教, 1998, 『完譯 增修臨瀛誌』, 강릉문화원.
고성(高城)	高城郡, 1995, 『高城郡誌』.
동해(東海)	東海市, 2000, 『東海市史』. 東海文化院, 2000, 『東海市 地名誌』. 東海市, 2001, 『東海市 史料集』. 박도식 편저, 2001, 『東海市史料集』, 동해문화원. 최만희, 1963, 『진주지』.
삼척(三陟)	강원문화연구소, 1997, 『完譯 陟州集』, 삼척문화원. 三陟文化院, 1994, 『三陟郡 地名由來誌』. 三陟市, 1997, 『三陟市誌』. 문화관광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한국의 전통마을 6, 『해신이 지켜온 어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박성중, 2002b, 「지명유래」, 『삼척 초당관광지 골프장건설예정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관동대학교 박물관. 배재홍, 2001, 『국역척주지』, 삼척시립박물관 심의승, 1916, 『三陟郡誌』.
속초(東草)	속초문화원, 1990, 『東草의 地名』. 東草市, 1991, 『東草市誌』. 東草文化院, 2001, 『옛 文獻 속의 東草』. 한정규 편, 2002, 『속초(東草)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양구(楊口)	姜大德, 2001,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 본 楊口』, 양구문화원. 楊口郡, 1984, 『楊口郡誌』. 양구문화원, 1994, 『楊口の 지명』.
양양(襄陽)	襄陽郡, 1990, 『襄州誌』. 襄陽文化院, 1995, 『襄陽의 땅이름』.
영월(寧越)	姜大德, 2000, 『朝鮮王朝實錄의 寧越史料』 上, 영월문화원. 姜大德, 2001, 『朝鮮王朝實錄의 寧越史料』 下, 영월문화원. 江原郷土文化研究會, 1998, 『영월과 단종사』, 영월군. 엄홍용, 1996,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대흥기획. 寧越郡, 1992, 『寧越郡誌』.

1) 강원도 지명 관련 자료집은 심보경(2012, 43-46)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지역	강원도 지명 관련 자료집
원주(原州)	<p>김성찬 역주, 2003, 『原州誌』, 원주시.</p> <p>문화관광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8, 한국의 전통마을 16, 『치악의 산골마을 부곡』,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p> <p>오영교 편, 2000, 『原州學史料叢書 : 隨錄』,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p> <p>오영교 편, 2000, 『原州學史料集』 한말기편 I, 연세대 매지학술연구소.</p> <p>오영교, 2002, 『橫城의 同族마을』, 횡성군.</p> <p>原州市, 1976, 『原州·原城 郷土誌』.</p> <p>原州市, 1999, 『原州市史』.</p> <p>원주시, 1999, 『원주의 지명 유래』.</p> <p>原州市, 2003, 『原州誌』.</p>
인제(麟蹄)	<p>姜大德, 2001,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 본 麟蹄』, 인제문화원.</p> <p>麟蹄郡, 1980, 『麟蹄郡誌』.</p> <p>麟蹄郡, 1996, 『麟蹄邑誌』.</p> <p>인제문화원, 2003, 『麟蹄郡 유적·지명·전설』.</p>
정선(旌善)	<p>정선문화원, 1997, 『정선의 옛 지명』.</p> <p>旌善郡, 2001, 『旌善의 郷史 : 내고장 傳統 가꾸기』.</p> <p>旌善郡, 2004, 『旌善郡誌』.</p> <p>진용선, 1996, 『신동읍 지명유래』, 정선아라리문화연구소.</p> <p>진용선, 2006, 『동강구역의 지명유래』, 정선아라리문화연구소.</p>
철원(鐵原)	<p>鐵原郡, 1992, 『鐵原郡誌』.</p> <p>鐵原文化院, 2005, 『鐵原의 地名 由來』.</p>
춘천(春川)	<p>姜大德, 2001,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 본 春川』, 춘천문화원.</p> <p>박성중, 2002c, 「지명유래」,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p> <p>朝鮮印刷株式會社, 1926, 『春川風土記』, 景仁文化社 影印.</p> <p>春城郡, 1981, 『春城의 脈』.</p> <p>春城郡教育廳, 1968, 『春城郡 郷土誌』.</p> <p>춘천문화원, 1992, 『春川郷土資料集』.</p> <p>춘천문화원, 1995, 『春川의 地名由來』.</p> <p>春川市, 1982, 『昭陽의 脈』.</p> <p>春川市·春城郡, 1984, 『春州誌』.</p> <p>春川市, 1996, 『春川市百年史』, 春川市.</p> <p>春川市, 1997, 『春川地理誌 譯註』.</p>

지역	강원도 지명 관련 자료집
태백(太白)	김강산, 1989, 『태백의 지명유래』, 태백문화원.
평창(平昌)	平昌郡, 1979, 『平昌郡誌』. 平昌文化院, 1989, 『芳林面誌』. 平昌文化院, 1991, 『蓬坪面誌』. 平昌文化院, 1992, 『龍坪面誌』. 平昌文化院, 1992, 『大和面誌』. 平昌文化院, 1993, 『珍富面誌』. 平昌文化院, 1995, 『美灘面誌』. 平昌文化院, 2000, 『平昌郡 地名由來』.
홍천(洪川)	姜大德, 2000,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 본 洪川』, 홍천문화원. 洪川郡, 1989, 『洪川郡誌』. 홍천교육청, 1995, 『너브내의 숨결』, 강원도 홍천 교육청. 홍천문화원, 1992, 『우리 고장 홍천』.
화천(華川)	姜大德, 2001,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 본 華川』, 화천문화원. 華川郡, 1988, 『華川郡誌』. 華川文化院, 1997, 『華川의 地名』. 화천군 사내면, 1997, 『우리고장의 유래』.
횡성(橫城)	姜大德, 2001,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 본 橫城』, 횡성문화원. 문화관광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6, 한국의 전통마을 1 『영동영서가 만난 삼다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이영식, 2001,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橫城郡, 1986, 『橫城郡誌』.

강원도는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 1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는 중부지방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함경남도과 황해도, 서쪽은 황해도와 경기도, 남쪽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있다.(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2008 : 47) <표2>는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지명 관련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지명 관련 연구자, 시사 및 군지 편찬위원회 관계자, 지방문화원 소속 연구자들이 참여한 것이다. 특히, 시지, 군지, 면지에 실린 ‘지명 편’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지명 연구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릉지명유래』(1997), 고성의 『우리고장의 지명유래』(1998), 『東海市 地名誌』(2000), 『三陟郡 地名由來誌』(1994), 『속

초의 옛 땅이름』(2002), 『楊口의 지명』(1994), 『襄陽의 땅이름』(1995),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1996), 『원주의 지명 유래』(1999), 『麟蹄郡 유적·지명·전설』(2003), 『정선의 옛 지명』(1997), 『철원의 지명 유래』(2005), 『春川의 地名由來』(1995), 『태백의 지명유래』(1989), 『춘천의 지명유래』(1995), 『平昌郡 地名由來』(2000), 『우리 고장 흥천』(1992), 『華川의 地名』(1997), 『횡성의 지명유래』(2001) 등이 있다.

대부분의 지명유래집이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한국지명총람』 2 (강원도 편 1982)과 국토지리정보원 공시 지명 유래를 답습하여 편찬태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강릉지명유래』(1997), 『東海市 地名誌』(2000), 『원주의 지명 유래』(1999), 『태백의 지명유래』(1989), 『횡성의 지명유래』(2001)는 조사자편찬자가 조사 지역에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한 점에서 내용과 구성면에서 심화, 발전한 형태이기도 하다.²⁾(심보경 2007 : 98 참조)

2.2. 강원도 지명 관련 연구논문 현황

강원도 지명 연구는 1976년 길민자(1976)의 「강원도 지방의 산이름 연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1980년대 강원도 지명 연구는 구비문학자와 문학전공자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김선풍(1980), 성광수(1980)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구비문학』에 강원도 영동 지역의 지명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인석(1986)이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 지명을 문학적인 연구방법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최근 이경수(2017)에서는 한시에 반영된 춘천의 지명을 연구한 바 있다.

1990년대 강원도 지명 연구는 지리학자에 의해 연구되었다. 金玉子(1992)는 강원도 흥천군, 양양군, 속초시 지명을 지리학적 접근방법으로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분류하여 지리적 환경과 지명의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강원도 지명 연구는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의 『江原文化 研究』에서 강원 지역 지리학자들이 지리학적 연구방법으로 강원도 지명을 조사하여 지명 유형을 분류하였으며(정장호 1993, 1994, 1998 ; 이학원·정장호 1996), 마을명을 연구한 논문도 있으며(文恩京·盧美慶(1994), 최근 김순배(2013, 2014)에서는 동해 지명과 설악과 한계 지명에 대해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 강원도 지명 관련 연구목록은 심보경(2012, 47-49)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여 재작성하였다.

〈표3〉 강원도 지명 관련 연구논문

분야	강원도 지명 관련 연구논문
강원도 지명 연구사	<p>심보경, 2007, 「강원도 지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語文論集』 제37집, 中央語文學會.</p> <p>심보경, 2012, 「국어사 자료 구축을 위한 한국지명 연구목록 데이터베이스: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51집, 中央語文學會.</p>
국어학 분야	<p>崔鳴吉, 1978, 「固有地名의 系統的 研究 : 嶺東地方 地名을 중심으로」, 『關東語文學』 1, 關東大學校.</p> <p>박성중, 1999., 「동해시 지명 연구 단상(斷想)」, 『인문학연구』 2,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p> <p>박성중, 2002, 「동해시 지명지 편찬과정과 지명조사 방법론」, 『동해문화』 3, 동해문화원.</p> <p>손주일, 2000, 「춘천 지역 지명 접미사에 대한 어휘론적 연구」, 『강원논총』 8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p> <p>손주일, 2004, 「다시 春川에서 靑國 찾아가기」, 『어학연구』 11집, 강원대학교 어학교육원.</p> <p>손진희, 2007, 「홍천군 지명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p> <p>손주일, 2008, 「동막골과 애막골에 대한 지명유래 설정과 문제점」, 『어문연구』 36권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p> <p>申景澈, 1990, 「原州地域 地名의 前部語 語義에 대하여」, 『원주월』 2호, 원주문화원.</p> <p>申景澈, 1991, 「原州地域 地名의 後部語 語義에 대하여」, 『원주월』 3호, 원주문화원.</p> <p>신경철, 2004, 「원주지역 한자어 지명에 대하여」, 『地名學』 10, 한국지명학회.</p> <p>심보경, 2004, 「GIS를 활용한 소지명 지도 제작을 위한 연구」, 『地名學』 10, 한국지명학회.</p> <p>심보경, 2005, 「춘천시 신복읍 지명어휘 DB와 명명 유연성의 특징」, 『언어과학연구』 33, 언어과학회.</p> <p>심보경 2010, 「필사본 『朝鮮地誌資料』의 국어학적 연구: 강원도 편 39-42권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44, 중앙어문학회,</p>
역사학 분야	<p>신종원 편, 2007,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朝鮮地誌資料》 江原道 篇』, 景仁文化社.</p> <p>김홍삼 편, 2009,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색인집 : 《朝鮮地誌資料》 江原道 篇』, 景仁文化社</p> <p>신종원 외. 2010.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연구』, 景仁文化社.</p>
지리학 분야	<p>길민자, 1976, 『강원도 지방의 산이름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p> <p>김옥자, 1992, 「江原道 地名의 類型別 分布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강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p> <p>鄭璋鎬, 1993, 「江原道 地名의 類型別 分布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1) : 寧越郡과 三陟市郡 및 太白市를 中心으로」, 『江原文化研究』 第12輯,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p> <p>鄭璋鎬, 1994, 「江原道 地名의 類型別 分布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2) : 旌善郡·平昌郡과 江陵市·東海市 및 溟州郡을 中心으로」, 『江原文化研究』 第13輯, 江原大學校 江原化研究所.</p> <p>文恩京·盧美慶, 1994, 「江原道 旌善郡의 地名에 관한 연구 : 촌락명을 중심으로」, 『지역환경』 12, 東國大學校 地域環境研究所.</p> <p>李學源·鄭璋鎬, 1996, 「江原道 地名의 類型別 分布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3) : 原州市와 橫城郡을 中心으로」, 『江原文化研究』 第15輯,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p> <p>鄭璋鎬, 1998, 「江原道 地名의 類型別 分布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4) : 楊口郡麟蹄郡 및 城郡을 中心으로」, 『江原文化研究』 第17輯,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p> <p>김순배, 2013, 「동해 지명의 의미의 누층과 지명 영역의 변화」, 『한국고지도연구학회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지도연구학회,</p> <p>김순배, 2014, 「설악산권 자연지명의 의미와 지명 영역의 변화: 설악과 한계를 중심으로」, 『地名學』 21, 한국지명학회,</p>

분야	강원도 지명 관련 연구논문
구비 문학 / 문학 분야	<p>金善豊, 1980, 「嶺東地名에 對한 民俗學的 研究」,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p> <p>성광수, 1980, 「영동지방 지명에 대한 어원론적 연구」,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p> <p>이인석, 1986,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 땅이름 연구: 유연성과 문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충원』 제3집, 충원고.</p> <p>이경수, 2017, 「조현명 한시의 춘천 표현」,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p>
민속학 분야	<p>김기설, 1990, 「주문진 지역 지명 유래」, 『아시아강원민속』 7·8,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김기설, 1990, 「묵호읍 지명 유래」, 『아시아강원민속』 13·14,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김기설, 1990, 「강동면 지명유래」</p> <p>김기설, 1994, 「강릉지역 지명 유래의 유형 고찰」</p> <p>이영식, 2001, 「횡성의 골짜기 명명에 대한 유래의 유형 및 특징」, 『어서매』 16, 횡성문화원.</p> <p>이영식, 2006, 「횡성의 지명전설과 태종의 관련성 연구」, 『아시아 강원민속』 20,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강명혜,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화천 지명의 양상 및 특징」,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김기설,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정치인식과 민간신앙에 의한 삼척의 지명 고찰」, 『아시아 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김학기,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동해시(東海市)"의 명명(命名) 배경에 관한 인문사회학적 분석」, 『아시아 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박도식,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강릉의 명칭 유래」,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심상교,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태백지역, 지명에 나타난 상상력 구조의 연구」,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오강원,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삼국시대(三國時代) "우(牛)"계(系) 지명(地名)의 역사지리학적(歷史地理學的) 맥락(脈絡)과 성격(性格) -춘천(春川)의 "우(牛)"계(系) 지명(地名)에 대한 또 다른 이해」,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이재범,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철원의 지명 유래」,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이영식,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횡성군 골짜기 명명(命名)의 유래와 분류」,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이학주,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흥천 이괄 관련 지명과 설화 조사 연구」,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이학주, 2015, 「인제군 관련 지명유래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과 예술』 15, 숭실대학교 한국문학예술연구소</p> <p>이한길,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지명유래를 통해 본 양양읍 명당 시론」,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장정룡,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고성 화진포 지명유래 고찰」,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전신재,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인제군의 지명전설」,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최명환,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영월군 지명(地名)에 투영된 지역의식 연구」,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한정규, 2008, 「강원도 지명유래 : "속초(束草)" 땅이름의 정리」,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p>柳今烈, 2018, 「春川 牛頭山 素戔鳴尊 新羅國 曾尸茂梨의 虛構와 實體」, 『아시아강원민속』 30, 아시아강원민속학회.</p>

국어학자의 시각에서 강원도 지명을 분석하고 지명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신경철(1990, 1991, 2004), 손주일(2000, 2004, 2008), 박성중(1999, 2002), 심보경(2005, 2007, 2012) 등이 있다. 신경철(1990, 1991)은 원주 지역 지명을 전부어와 후부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손주일(2000)은 강원 춘천 지역 1790곳의 지명을 대상으로 지명 접미사의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손주일(2004)은 ‘춘천이 맥국의 중심지였음’을 밝히기 위해 맥국 전설, 고사서의 맥국 기록, 고고학적 접근에 의한 맥국 유적 찾기, 맥국 전설 지명 등을 통해 지명연구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성중(1999, 2002)은 동해시 지명을 조사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도한 지명 조사방법과 지명지 편찬방법이 기술되어 있어 지명조사 및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된다. 심보경(2004)은 GIS를 활용하여 강원 영서지역 지명을 효과적으로 데이타베이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시도이며, 심보경(2005)에서는 GIS를 활용하여 춘천시 신복읍 지명어휘를 DB하고 지명어의 어휘 분포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심보경(2007)은 강원도 지명연구성과를 학계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여 종합정리한 후 강원도 지명연구의 과제를 모색하였으며, 심보경(2010)에서는 필사본 『朝鮮地誌資料』 강원도 편 39-42권에 나타난 강원도 지명을 바탕으로 국어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심보경(2012)에서는 국어사 자료로서 강원도 지명연구의 목록을 정리한 바 있다.

역사학자 분야에서 강원도 지명을 분석한 연구로는 신종원(2007, 2010), 김홍삼(2009)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朝鮮地誌資料』 강원도 편을 해제하고 색인작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朝鮮地誌資料』에 담긴 강원도 지명에 대해 검토하였다.

민속학 분야에서 강원도 지명연구는 2008년 아시아강원민속학회를 중심으로 강원도 지명 유래를 기획하여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명유래를 『아시아강원민속』 제22집에 담아낸 바 있다.<표3> 참조) 이것은 민속학자의 관점에서 지명전설과 설화, 지명유래를 중심의 담아낸 강원도 지명연구 결과물로 지명연구 성과물이 많지 않은 강원도 지명연구에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이학주(2015)은 인제군 지명유래의 현황과 의미를, 유금열(2018)은 춘천 우두산 ‘素戔鳴尊’과 新羅國 ‘曾尸茂梨’의 지명 관계에 대해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3. 강원도 지명연구 방향

지명은 지역에 대한 언어적 정보를 토대로 위치정보, 역사정보, 행정정보 등 국어학, 역사학, 지리학, 민속학, 행정학 등 인접 학문과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질 때 지명연구는 연구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강원도 지명연구 역시 학제 간의 학문적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지명연구의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강원도 지명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연구에 대한 학문적 위상 제고 및 공공언어로서 지명연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조태린(2010:383)은 공공언어의 개념에 대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명은 융합적 속성이 있어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연구결과 학문 영역에서는 핵심 분야보다는 주변적 성격이 강해 연구진들의 지속적인 지명 연구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 지명연구가 힘을 얻으려면 지명연구에 대한 위상 제고, 공공언어로서 지명연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역사문헌 및 고지도에 있는 지명의 정리, 지역별로 간행된 기존 지명 관련 자료집에 대한 정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지명연구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호구총수』, 『여지도서』, 『읍지』, 『조선지리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조선 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등과 같은 역사문헌 자료와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지방군현도>, <청구도>, <대동여지도>, <조선지형도(1:50,000)>, <1:250,000 지세도(국토지리정보원)> 등과 같은 고지도에 있는 지명 등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간행된 기존 지명 관련 자료집의 정리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현지 지명조사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명연구는 융합적 속성으로 인해 개인 연구자의 연구역량만으로는 효율성을 거두기가 녹록치 않다. 지명연구가 체계적,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학문 간의 융합적 이해를 토대로 전문적,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명연구 공동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공 연구자들은 해당 지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도 및 문헌자료 해석, 지명 유래에 대한 전문적 지식, 언어적 분석 등 지명에 대한 연구성과를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강원도 지명사전을 위해서는 일본 평범사 간행 『일본역사지명대계』, 『한국지명유래집』³⁾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일본역사지명대계』(1981) 50권은 일본 각 현을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분류하여 각 시기의 성립배경, 주요 역사, 문화적 상황들을 개관하고, 각각의 군명, 향명, 촌명 등의 행정지명과 자연지명에 대하여 고문헌과 고지도 등 사료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 문헌에

3) 『한국지명유래집』(2008)은 고지도와 지리지 등의 역사사료에 근거하여 행정지명과 자연지명을 정리한 지명유래집이다. 이 문헌은 1)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찬된 기존의 지명유래집과 달리 역사사료와 고지도를 고증하여 집필하였다는 점, 2) 객관적 기준과 서술방식의 통일성을 갖고 진행되었다는 점, 3) 지명항목 선정 시 공시지명과 지명인지도도를 고려하여 항목을 선정한 점, 4) 사료 이미지를 첨부하여 사실성을 높인 점 등이 장점이다.

서는 역사지명, 행정지명, 자연지명을 실증적·객관적 기준으로 서술하는 태도와 지명에 대한 방대한 결과물이 돋보인다. 이미 1981년에 간행된 『일본역사지명대계』(50권)과 같은 연구성과물을 편찬할 수 있도록 연구진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⁴⁾

4. 결론

4) 日本 平凡社 간행 『日本歴史地名大系』 간행사에는 다음과 같이 편찬태도를 밝히고 있다. “지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인식하여 이것이 토지와 결부된 언어, 민속, 생산, 지리, 신앙, 문화 등을 고려하여 일본사, 고고학, 민속학, 언어학, 국문학, 지방사 등의 연구와 결부하여 서술하였다. 행정구획 정리사업으로 舊町村名の 변화과정과 小地名, 전통산업 등에서 기인한 지명 등이 소멸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번을 최후의 기회로 삼았다. 특히, 평범사는 편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적 인식과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각 지역 전문 연구자를 중심으로 都道府縣別로 편집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력을 대해 『日本歴史地名大系』를 간행하였다. 이제까지 채록되지 않은 지명을 자료와 답사로 복원하는 것은 본 간행물의 사명이다. 이것은 『日本歴史地名大系 30 : 『奈郎縣の地名』(1981)의 간행사(刊行のことば)를 번역하되,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여 필자가 수정 및 첨언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문헌】**[강원도 지명 관련 자료(연도별)]**

三國史記 地理志(1145).

高麗史(1451~1454).

朝鮮王朝實錄(1413~1865).

世宗實錄 地理志(1454).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東國輿地志(1656~1673).

輿地圖書(1757~1765).

戶口總數(1789).

大東地志(1861~1866).

朝鮮地誌資料(19010년대).

朝鮮總督部(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朝鮮總督部(太學社 影印本).

越智唯七(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太學社 影印本).

朝鮮總督部 中樞院 調査課(1937), 世宗實錄「地理志」索引,

朝鮮總督部 中樞院. 朝鮮總督府 中樞院 調査課(1937, 1940), (新增)東國輿地勝覽 索引,

한글학회(1966~1986), 한국 지명 총람 1~20, 한글학회.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기획과(1979), 地方行政區域發展史, 내무부 지방행정국.

建設部 國立地理院(1987), 地名由來集, 建設部 國立地理院.

한글학회(1991), 한국땅이름근사전 상·중·하, 한글학회.

평화문제연구소(2005), 조선향토대백과 1~20, 평화문제연구소.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편(2006),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강원도 지명 관련 논제]

강명혜(2008), 「화천 지명의 양상 및 특성」, 『아시아강원민속』 2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353-394.

姜秉倫(1998), 「地名語 研究史 : 1990년대 전반기까지를 중심으로」, 『地名學』 1, 한국지명학회, 219-276.

김기설(1990), 「주문진 지역 지명 유래」, 『아시아강원민속』 7·8, 아시아강원민속학회, 85-88.

김기설(1990), 「목호읍 지명 유래」, 『아시아강원민속』 13·14, 아시아강원민속학회, 161-203.

김순배(2013), 「동해 지명의 의미의 누층과 지명 영역의 변화」, 『한국고지도연구학회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지도연구학회, 83-133.

김순배(2014), 「설악산권 자연지명의 의미와 지명 영역의 변화: 설악과 한계를 중심으로」, 『地名學』 21, 한국지명학회, 37-78.

김옥영(2014), 「강원도 지역어 연구사」,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31-76.

김흥삼 편(2009),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색인집 : 《朝鮮地誌資料》 江原道 篇』, 景仁文化社.

대한지리학회 편(2006), 『강원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朴秉喆(2017), 「歷史文獻資料를 대상으로 한 地名 研究의 成果와 課題」, 『국어국문학』 181, 국어국문학회, 5-38.
- 朴秉喆(2017), 「調査資料 地名을 대상으로 한 言語學的 研究成果와 課題」, 『地名學』 21, 한국지명학회, 35-86.
- 朴秉喆(2019), 「일제강점기 이후의 지명 관련 자료집 편찬과 지명」, 『地名學』 제30집, 한국지명학회.
- 박성종(1999), 「동해시 지명 연구 단상(斷想)」, 『인문학연구』 2,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9-162.
- 신경철(2004), 「원주지역 한자어 지명에 대하여」, 『地名學』 10, 한국지명학회, 97-112.
- 신종원 편(2007),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朝鮮地誌資料》 江原道 篇』, 景仁文化社.
- 신종원 외(2010),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연구』, 景仁文化社.
- 심보경(2004), 「GIS를 활용한 소지명 지도 제작을 위한 연구」, 『地名學』 10, 한국지명학회, 113-135.
- 심보경(2005), 「춘천시 신복읍 지명어휘 DB와 명명 유연성의 특징」, 『언어과학연구』 33, 언어과학회, 151-178.
- 심보경(2007), 「강원도 지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語文論集』 제37집, 中央語文學會.
- 심보경(2010), 「필사본의 『朝鮮地誌資料』의 국어학적 연구: 강원도 편 39-42권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44, 중앙어문학회, 75-101.
- 심보경(2012), 「국어사 자료 구축을 위한 한국지명 연구목록 데이터베이스: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제51집, 中央語文學會, 33-57.
- 심보경(2018), 「공공언어 표기실태 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표자영문표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58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7-49.
- 심상교(2008), 「태백지역 지명에 나타난 상상력 구조의 연구」, 『아시아강원민속』 2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167-190.
- 柳今烈(2018), 「春川 牛頭山 素戔鳴尊 新羅國 會尸茂梨의 虛構와 實體」, 『아시아강원민속』 30,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25-279.
- 이경수(2017), 「조현명 한시의 춘천 표현」,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5-135.
- 이광석(2017), 『정책으로서의 행정언어 국어정책론』, 역락.
- 이영식(2006), 「횡성의 지명전설과 태종의 관련성 연구」, 『아시아 강원민속』 20, 아시아강원민속학회, 463-481.
- 이인석(1986),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 땅이름 연구: 유연성과 문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충원』 제3집, 충원고.
- 이학주(2008), 「홍천 이팔 관련 지명과 설화 조사 연구」, 『아시아 강원민속』 2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321-352.
- 이학주(2015), 「인제군 관련 지명유래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과 예술』 15, 송실대학교 한국문학예술연구소, 173-205.
- 이한길(2008), 「지명유래를 통해 본 양양읍 명당 시문」, 『아시아 강원민속』 2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17-251.
- 이희승(1932), 「지명연구의 필요」, 『한글』 2, 한글학회, 46-48.
- 장정룡(2008), 「고성 화진포 지명유래 고찰」, 『아시아 강원민속』 2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191-216.
- 전신재(2008), 「인제군의 지명전설」, 『아시아 강원민속』 2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77-297.

- 조태린(2010), 「언어 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제20권 제2호, 국립국어원, 117-131.
- 조태린(2012), 「인문학으로서의 국어 연구의 대중화·실용화: 언어 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1-26.
- 최명환(2008), 「영월군 지명(地名)에 투영된 지역역사 연구」, 『아시아 강원민속』 22,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53-275.
- 平凡社 篇(1981), 『日本歴史地名大系 30 : 奈良縣の地名』, 平凡社.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지명연구

김 무 림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 차

- | | |
|---------------|-------|
| 1. 도입 | 3. 결론 |
| 2. 지명 표기의 언어학 | |
-

1. 도입

지명은 현실의 언어이면서 과거의 언어이기도 하다. 춘천의 교동에서 옥천동 사이에 있는 ‘백고개’는 ‘백+고개’로 분석된다. ‘고개[峴]’는 현대의 일상 언어로서 잘 쓰고 있는 말이지만, ‘백’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특히 지금의 ‘백고개’를 1910년대에는 ‘빅지고기’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백고개’의 ‘백’은 ‘빅지’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빅지’란 말은 현대식으로 읽으면 ‘배지’가 될 것인데, 이 말의 뜻을 알 수 없다. 또한 1910년대의 ‘빅지고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다른 형태에서 유래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명은 단지 명칭에 불과한 듯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언어가 공존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복층적인 지명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어떤 지명의 유래를 묻기도 하고, 지명을 구성하는 형태를 분석하여 각 형태의 구성 방법과 의미를 캐기도 한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지명의 특징을 언어학적으로나 문화적 맥락에서 분류하여 그 공통점과 특징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해당 지역의 지명이 갖는 가치가 단지 이름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지명이 간직하고 있다는 충분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명 연구의 언어학적 측면을 개관하면서도, 구체적인 용례에 있어서는 가급적 강원도 지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노력하였다. 언어학적 측면은 첫째 지명과 차자표기, 둘째 지명과 음운론, 셋째 지명과 형태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명과 의미론 역시 언어학적 하위가 될 것이나, 의미론은 제반의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따로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시(共時)와 통시(通時)의 구분도 역시 불필요하다. 그것은 본고에서 살피게 되는 모든 지명이 역사적 층위로서 존재하여 항상 통시적 시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 지명 표기의 언어학

2.1. 차자표기(借字表記)

‘春川’이란 지명은 ‘봄내’에서 왔다고 한다. 고려 태조 때에 춘주(春州)라 하였고, 조선 태종 때에 ‘춘천(春川)’이라고 하였다. ‘봄내’란 지명이 ‘春川’ 이전에 정말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봄내’에서 ‘春川’이란 지명이 생겼다면 바로 한자의 훈(訓)을 이용한 차자표기가 적용된 것이다.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이용한 우리말 표기를 차자표기라고 한다. 중요한 옛 문헌은 거의 한자로 된 지명을 싣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차자표기의 원리에 의한 문자론적 해석이 불가결하다. 차자표기에 의한 지명의 공존은 여러 문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명에 나타나는 차자표기의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차자표기의 유형

가. 음차 표기: 고유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삼척: 麻達里/마달리), 末加味谷/말가미골

홍천: 畚機村/답기촌, 於矣洞/어의동

평창: 阿波洞/아파실, 童舞地峙/동무지치

양양: 只是川/지시내(<지시늬)

나. 훈차 표기: 고유어를 한자의 훈을 빌려 표기하는 한역(漢譯) 표기이다.

철원: 大鳥洞/한새울, 梨峴/배고개(<빅오기<빅고개)

화천: 背後谷溪/등뒤킵개울(<등뒤골기울<등뒤골개울), 楸谷/가래골

인제: 餅峰/씩봉, 舊垆坪/날근터(<늪 언터)

다. 훈가(訓假) 표기: 한자의 본뜻은 버리고 훈의 음만 빌려 표기하는 방법이다.

정선: 𪎠川/싸내(<싸늬<활내)²⁾, 蠹川/좀내(<좀내)³⁾

1) ‘마달’은 원래 ‘못알(池下)’이었다고 한다.

2) 활처럼 휘어도는 내라고 하여 ‘활내’라고 하였다 한다.

양구: 一夜味坪/함배미들(<흔 비미쓸), 檀岷/박달고개
 고성: 竹島/대섬, 馬轉坪/말구리

(2) 『朝鮮地誌』에 기록된 한자지명과 한글지명

가. 춘천

栢岷 : 잣고지 > 잣고개(부내면 아동리)
 栢(빅): 주근 後에 자시 ㄷ외니라(능엄경언해 7-88)⁴⁾
 岷(현): 고개(훈몽자회 상-2)
 晴淵 : 기모시 > 개못(부내면 가연리)
 晴(청) : 하늘히 개니(두시언해-초간 23-20)
 淵(연): 못(훈몽자회)
 漆山堤 : 올미제 > 올미제(북내일작면 칠산리)(웃피> 온피> 올미)
 漆(칠): 漆은 오시라(범화경언해 1-219), ㅁ 른 오츨(언해태산집요 53)
 山(산): 나모와 ㅁ와 내과(능엄경언해 2-34)
 堤(데): 언 데(堤, 훈몽자회 상-3), 둑(堰埒, 유씨물명고)

나. 원주

楡岷 : 느르기 > 유현(횡성군)
 楡(유): 느릅나무(훈몽자회 상-5)
 上芬芝谷 : 웃분지울(매지리)(글> 울)
 上(상): 웃(신증유합 상-2)
 谷(곡): 글(훈몽자회 상-2)
 升安里酒幕 : 되안니쥬막 > 돼니주막(대안리)
 升(승): 되(훈몽자회 중-6)

다. 강릉

於屹里 : 느리울이 > 느러리/어홀리(성산면)
 於(어): 늘(천자문 28)
 屹(홀): 궤즉홀(신증유합 하-54)

3) '좁내'는 '작은 내'라는 뜻이라고 한다. '좁[蟲, 蠶]'의 중세국어 형태는 '좁'이 아니라 '좁'이다.
 4) 한자음은 중세국어(15~16세기)의 현실 한자음이다.

助山里 : 조뫼 > 즈무(대전동)

助(조): 도울(신증유합 하-11)

柳等里 : 버드리 > 버들이(연곡면)

柳(류): 버들(훈몽자회 상-5)

等(등): 곶을/곶울(천자문 42), 등데(신증유합 상-17)⁵⁾

2.2. 음운론

지명 표기에 대한 언어학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운론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지명의 형태적 변화에 음운의 변화를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ㅂ > ㅃ > [w]/[zero], ㅅ > [zero]/ㅆ, ㅇ > 아/으’ 등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음운 현상의 의한 음운의 탈락, 교체, 첨가 등의 동적(動的)인 변화를 참고해야 한다.

음운론의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지명을 대상으로 하여 몇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음운 현상은 시대별로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음운의 탈락, 교체, 첨가 등은 지명의 변화에서 빈번하게 포착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명을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음운의 탈락

가. ‘ㄱ’의 탈락

살이골(<살기골/米川洞, 양양)

굴아우(<굴아구, 굴의 입구라는 뜻, 평창)

가래울(<갈리골/楸谷, 화천)

갈모이(<갈모기<갈목/楸木洞, 화천)

나. ‘ㅂ’의 탈락

물앙애골(<물앙이골<물방아골/水舂谷, 화천)

칠앗고개(<칠밭고개<漆田峴, 홍천)

월아우(<월바우/月峯, 평창)

뗏찌(<뗏얏<뗏밭/茅田, 강릉)

5) ‘柳等里’의 ‘等’은 훈에 의한 ‘들’의 표기로 이해된다. 중세국어 ‘들히[等]’을 참고할 수 있다. ‘버들’의 ‘들’을 표기한 ‘等’은 일종의 말음첨기(末音添記)에 해당한다.

다. ‘ㅅ’ 탈락

터일(<터실/基谷, 동해)

라. ‘ㄹ’의 탈락

달아치(<달알치/月下峙, 양양)

마. 기타 음운의 탈락

시노리(<신노리/新魯里, 영월): 동음 생략

가릉소(<갈홍소/葛洪沼, 영월): 공명음 사이에서 ‘ㅎ’ 탈락

머드레이(<머드랭이/遠坪, 정선): 모음 사이에서 ‘ㅇ’ 탈락

물추이(<물춘니/水村, 정선): 동음 ‘ㄴ’의 생략과 ‘이’ 모음 앞에서 ‘ㄴ’ 탈락

너래(<널늑/廣川, 정선): ‘널늑> 널래> 너래’의 유음화 및 ‘ㄹ’ 탈락

느치(<눌치/訥雉里, 철원): 치음 앞에서 ‘ㄹ’ 탈락

맹이산(<땡리산/孟理山, 춘천): ‘ㄴ> ㄹ’ 탈락

마칠(<밭치울/田峙谷, 춘천): ‘우’ 탈락

허뱅이(<화방이, 홍천): [w] 탈락

(2) 음운의 교체

가. 자음의 교체

물무리골(<물부리골/水潤洞, 영월): 부를 윤(潤, 훈몽자회 상-7)

아창골(<아친곡/我親谷, 영월): ‘ㄱ’에 의해 ‘ㄴ’이 ‘ㅇ’으로 바뀜

삿둔(<삽둔리/插屯里, 영월): ‘ㄷ’에 의해 ‘ㅂ’이 ‘ㅅ’으로 바뀜

느목(<늦목/晩項): 비음동화

삼막골(<산막골/山幕谷, 화천): ‘ㄹ’에 의한 조음위치 동화

진말(<긴말/衿말/介村, 화천): ‘ㄱ’ 구개음화

진두루(<긴두루/長坪, 화천): ‘ㄱ’ 구개음화

돈들(<돛드루/道音坪, 양양): 조음위치 동화

완덕개(<왕덕기, 춘천): 조음위치 동화

지둔지(<디둔지/地屯池, 춘천): ‘ㄷ’ 구개음화

신내(<살내/楓川, 춘천): 비음 동화

빈재(<빙지/氷峴, 원주): 조음위치 동화

상너무골(<향나무골, 강릉): ‘ㅎ’ 구개음화

나. 모음의 교체

슴버덩(<섬버덩/島坪, 양양): 고모음화

우래실(<우라실/鳴羅谷, 영월): 움라우트

소와(<소애리/小崖里, 영월): ‘오’에 의한 원순모음화

사태골(<새터골,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 평창)

납닥골(<납덕골/納德洞, 정선):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

지르네미(<지르너미/內半占, 정선): 움라우트

베리실(<벼리실/別於谷里, 정선): 움라우트

지당골(<제당골<제당골/祭堂谷, 화천): 전설고모음화

신고개(<흰고개/白峴, 양구): ‘ㅎ’ 구개음화

배일고개(<바일고기/芳谷峙, 춘천): 움라우트

(3) 음운의 첨가

감매쇼(<가미쇼/釜沼, 화천): ‘ㅁ’ 첨가

선녀골<서역골/西役洞, 화천): ‘ㄴ’ 첨가

어랭이골(<어양골/魚羊谷, 양양): ‘ㄹ’ 첨가

2.3. 형태론

대개의 경우 지명은 ‘전부요소(前部要素)+후부요소(後部要素)’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명의 전부(前部)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내적 특성을 반영하게 되지만, 후부(後部)는 지명의 범주를 해당 지역의 언어적 특성으로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형태론적 연구의 주목을 받았다. 강원도는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되면서, 영서 지역은 수도권과의 변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지명의 형태론적 특이성은 영동 지역의 지명에 더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강릉시의 지명을 대상으로 후부 요소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1) 강릉시 지명의 후부요소

가. 한자어 후부요소: -가(街), -각(角), -강(江), -계(溪), -곡(谷), -교(橋), -기(基), -내(內), -담(潭), -대(臺), -동(洞), -두(頭), -령(嶺), -릉(陵), -리(里), -림(林), -막(幕), -면(面), -문(門), -방(坊), -방축(防築), -보(洑), -봉(峰), -북(北), -사(寺), -산(山), -산성(山城), -석(石), -성(城), -소(沼),

-시(市), -시장(市場), -암(岩), -역(驛), -연(淵), -언(堰), -우(隅), -원(院), -점(店), -정(井),
 -정(亭), -제(堤), -주막(酒幕), -지(地), -지(池), -진(津), -천(泉), -천(川), -촌(村), -치(峙),
 -평(坪), -포(浦), -항(項), -현(峴), -호(湖), -후(後) 등등

나. 고유어 후부요소

- 가: 갯가/湖邊(강릉 저동)
- 개: 순개(강릉 산대월)
- 거리: 제장거리/堤長街洞(신리 향호)
- 고개: 앞고개/前峴(성산 오봉)
- 고지(-곶, -꼬지): 부채곶/부채고지(옥계 금진), 돌꼬지
- 골(-꼇): 돈반골/豚放谷(강릉 포남), 방꼇(신리 주문)
- 구미(-곶, -꾸미, -꿈): 뒷구미(강릉 지변), 모안이곶(강릉 포남), 땡땡이꿈(강릉 노암)
- 구피: 가래구피(왕산 구절)
- 깎: 방깎/栗洞(덕봉 두산)
- 끝(사천 산대월)
- 끼리: 사이끼리(연곡 영진)
- 나드리: 배나드리
- 나루: 오랏나루/五里津(신리 향호)
- 내: 뒷내/後川(강릉 죽헌)
- 내기: 관장내기/官長木山(옥계 북동)
- 너래: 웃너래(성산 관음)
- 네펜(-넝): 하네펜(왕산 고단)
- 다리: 가작다리(강릉 교동)
- 단(-단이): 갈보단(자가곡 임곡), 검단이/金丹村(옥계 산계)
- 달: 어달/於達(망상 대진)
- 담: 두룽담
- 땡이: 난땡이
- 덕: 고비덕
- 돌(-도리): 소돌/牛岩津(신리 향호), 안도리
- 두: 메두
- 두둑: 가두둑/柯坪里(연곡 하송림)

- 드루(-뜨루): 마루뜨루/馬上坪(망상 망상)
- 들(-뜰): 성두들/城北坪(강릉 포남-초당), 헨돌뜰/白石坪(덕방 두산)
- 등: 진등
- 떼기: 가마떼기/轎店(자가곡 모전)
- 막: 사기막(사천 판교)
- 말: 짚썩말/陽村(사천 산대월)
- 맬: 괴맬/古馬洞(신리 향호)
- 메기: 놀메기/老洞(신리 향호)
- 모루: 돌모루
- 모통이: 웃모통이
- 목: 갯목/浦項渡(옥계 주수)
- 목이: 노루목이/獐項峴(성산 어홀)
- 뫼: 지은뫼
- 미: 민미/文山(강릉 안현)
- 밑: 옷밑/漆底洞(옥계 남양)
- 바대: 뒷바대
- 바라니: 큰바라니
- 바우: 범바우
- 밭(-마리): 솟밭/솟마리
- 밭: 한밭/大田(강릉 대전)
- 배기: 가마배기
- 버덩: 축밭버덩
- 벼루(-베리): 흙벼루/흙베리/土峴(강릉 초당)
- 불(-부리): 바람불/바람부리(왕산 대기)
- 샘: 찬샘
- 섬: 앞섬
- 손: 마리손
- 술(-소리): 줄술, 뎌보시
- 실: 숲실/林谷(자가곡 임곡)
- 아래: 방축아래
- 아우: 골아우/鯨岩谷(강릉 위촌)

- 안(-안이): 연꼴안/연꼴안이
- 앗: 띠앗
- 언덕: 불근언덕
- 을: 솔을(강릉 교동)
- 이: 삼왕이/三旺洞(성산 보광)
- 일: 퇴일/退谷(연곡 하송립)
- 자리: 곰자리
- 재: 도투리재(강릉 포남-초당)
- 절: 엇구지절
- 제: 벌열제/伐列堤(강릉)
- 터: 궁궁터/弓弓基村(신리 삼교)
- 포기: 고루포기
- 등등

고유어 후부요소의 경우에는 국어사(國語史)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지명의 후부요소가 기반하고 있는 언어의 층위가 중세 및 고대국어로 소급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의 지명에 적용된 후부요소에서 사용 빈도가 10회 이상인 것은 -골(200), -말(127), -바우(70), -재(69), -고개(29), -내(15), -목(19), -이(27), -미(12) 등이다.⁶⁾ ‘-골, -말’ 등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바우, -재, -고개’는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에서 그 분포의 밀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6-나)에 제시한 고유어 후부요소 가운데 국어사적 해명이 필요한 것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 고유어 후부요소에 대한 논의

- 고지/-곶: 해당하는 한자로는 ‘插(삽: 꿏다)’과 ‘串(관/곶)’이 있다. 지명의 유래에 따라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 구미/-굽: 대개의 경우 ‘후미진 곶’을 지칭하지만, 확실한 어원을 알 수 없다.
- 구피: ‘굽다[曲]’의 어간 ‘굽-’에 접미사 ‘-이’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 끼리: ‘(사이에) 끼다’에서 온 말이다.
- 내기: ‘나다[生]’의 사동사인 ‘내다’에서 온 말이다.

6) 빈도 수는 대략적인 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 방법 및 범위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것이다.

- 너래: ‘너르다[廣]’에서 온 말이다. ‘-느르(미)’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 넙: ‘넙[沼]’에서 변한 말이다.
- 단/-단이: 고구려 지명의 후부요소인 ‘旦, 呑, 頓’ 등과 관련이 있다. 의미는 ‘속(곡)’이다.
- 달: 고구려 지명의 후부요소인 ‘達’과 관련이 있다. 원래 ‘達’은 ‘高(고), 山(산)’ 등의 의미로 쓰였으나, 이후에는 단순히 ‘장소’의 의미로 쓰인 듯하다.
- 덕: ‘언덕’의 ‘덕’과 관련이 있다. 대개 ‘높고 평평한 지형’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 두: ‘뒤[後, 北]’와 같은 형태이다. 한자로는 ‘頭’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 드르: ‘들[野]’과 같은 말이다. ‘-드루’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모루: 중세국어 ‘모로[山]’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모퉁이[隅]’의 뜻으로 쓰인 경우가 더 많다.
- 미: ‘피[山]’에서 변한 말이다.
- 버덩: 중세국어 ‘버덩[砦]’에서 온 것이지만, 주로 ‘뜰’의 뜻으로 쓰인다.
- 벼루/-베리: 중세국어 ‘별[崖]’에서 온 말이다.
- 불/-부리: 신라 지명의 후부요소인 ‘火, 伐’이나 백제 지명의 후부요소인 ‘夫里’와 관련이 있다.
- 살: ‘속(곡)’의 새김으로 ‘골’과 ‘살’의 두 형태가 있다. ‘터살> 터일’과 같이 ‘ㅅ’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 일: ‘실[谷]’에서 ‘ㅅ’이 탈락한 형태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후부요소의 성립과 분포에 대한 강릉시 지명의 특징은 ‘-단/-단이, -달’ 등의 고구려 계통의 북방적 요소와 ‘-불/-부리, -실/-일’ 등의 신라 및 백제 계통의 남방적 요소의 혼재로 요약할 수 있다.⁷⁾ 이러한 관점의 논의는 영동 지역의 전체, 또는 강원도의 전체 지명을 통해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춘천 지역의 지명에 대한 손주일(2000)의 논의에서 제시한 후부요소를 빈도와 함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춘천 지명의 후부요소 빈도

- 골/-골(718), -고개(186), -바우(151), -봉(82), -터(74), -말(68), -들/-드루(63), -산(55), -소(37), -거리(33), -개(30), -곡(30), -여울(29), -개울(23), -목(19), -보(19), -리(18), -버덩(17), -배기(14), -안(14), -실(13), -미(12), -구미(11), -령(11), -정(9), -치(9), -못(8), -벌(8),

7) ‘-골[谷]’은 기원적으로 고구려 계통의 ‘忽’과 관련된 북방 계통의 후부요소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미 한반도 전역에 고루 분포한다는 측면에서 이른 시기에 전국으로 확대된 후부요소라고 생각된다.

-나루(7), -포(7), -덕(6), -등(6), -피(6), -무덤(6), -부리(6), -기(5), -배미(5), -빙(5), -나무(4), -당(4), -돌(4), -점(4), -이(4), -섬(3), -구렁이(2), -구레(2), --너머(2), -마루(2), -머리(2), -고지(1), -구렁(1), -골명(1), -내기(1), -논(1), -밭(1), -모롱이/-모퉁이(1), -물(1), -샘(1), -촌(1), -폭포(1) 등등

이상과 같은 후부요소의 분포에 대하여 손주일(2000)에서는 ‘-골/-꼴, -고개, -마우, -봉/-산, -터’ 등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춘천 지역이 산악 지대에 휩싸여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강릉의 후부요소를 비교하면 공통점과 함께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부요소에 대한 고찰은 해당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4. 의미론: 지명의 유래와 관련하여

지명의 명명은 해당 지역의 지형(地形)과 물산(物産), 그리고 역사적 사건 등이 관여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의 지명은 시대를 따라 내려오면서 명명(命名)의 유연성(有緣性)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후대의 견강부회(牽強附會)에 의하여 지명의 유래는 윤색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엉뚱한 유래를 지니게도 된다. 어느 지명이 애초의 의미를 잃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마치 고향과 조상의 유래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원도 지명에서 지금 남아 있는 유래를 훑어보고 몇몇 의문시되는 유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강원도 지명 유래의 검토

가. 퇴계동(退溪洞, 춘천): 퇴계 이황의 외가가 있었다고 하여 ‘퇴계동’이 되었다는 속설이 있으나, 『해동지도』의 지명에는 ‘무릉계(武陵溪)’로 되어 있다. 따라서 ‘退(퇴) : 무르다’의 관계가 성립한다.

나. 공지천(孔之川, 춘천): ‘공지어(孔之魚)’가 많이 사는 하천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원래 ‘곰지내’로 불렸던 것, 그리고 ‘곰살내’와의 관련성도 있으므로, ‘공지어’ 관련 유래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 무실동(茂實洞, 원주): ‘물[水], 무리[衆]’와 관련시키기도 하고, 그냥 한자의 뜻 그대로 ‘풍부한 과실[茂實]’과 관련시키기도 한다. 아마도 ‘물[<물, 水]+실[谷]’에서 ‘무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사할 듯하다.

- 라. 벼락바위봉(원주): 벼락을 맞아 갈라진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만, 정상부의 바위가 절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ㅎ[崖]+바위[岩]’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세국어 ‘별ㅎ’은 현대국어 ‘벼랑’으로 이어진다.
- 마. 섬강(蟾江, 원주): ‘달강, 달래강’이라고도 하는 것을 참고하면, ‘달’을 ‘蟾(섬)’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강’에서 ‘달’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두꺼비 바위’와 관련된 유래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달 속에 두꺼비가 있다는 전설에 의하여 ‘蟾(섬)’의 새김에 ‘달[月]’이 있다.
- 바. 울산바위(蔚山바위, 속초): 가장 많이 알려진 유래는 경상도 ‘울산(蔚山)’과 관련된다. 그러나 옛 문헌에는 ‘천후산(天吼山), 이산(離山)’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후산(天吼山)’을 기준으로 하면 ‘울산바위’의 ‘울’은 ‘울-/우르-[吼]’와 관련이 있고, ‘이산(離山)’을 기준으로 하면 ‘울/울타리[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장 관련이 없다면 경상도 ‘울산(蔚山)’이다.
- 사. 솔미산(삼척): 다른 이름으로 ‘송미산(松尾山)’과 ‘손미산’이 있다. 그런데 옛 『(비변사인)군현지도』에 보면 주위에 ‘鷹峰山’이 있다. 이것으로 짐작하면 ‘소리[鷹]+뫼[山]> 솔뫼> 솔미’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된다. ‘손씨(孫氏)’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되어 생긴 산명(山名)이라는 속설은 근거가 희박하다. ‘손미산’은 ‘송미산’에서 변한 말일 것이다.
- 아. 말구리재(평창): 강원도 여러 곳에 ‘말구리’란 지명이 있으며, 한자어로 ‘馬轉(마전)’으로 표기된 곳도 있다. 흔히 ‘말이 굴렀다’는 유래가 붙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말[大]+골[谷]’이라는 어원적 구성으로부터 온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자. 철원(鐵原 <鐵城 <鐵圓/毛乙冬非): ‘철원’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다. 유력한 것을 들면, ‘새[東]+불[原]’에서 왔다는 것으로, ‘새[東]’가 ‘쇠[鐵]’로 바뀌어 ‘쇠불’이 되고 한역(漢譯)하여 ‘鐵原’이 되었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삼국사기』에 ‘철원군(鐵圓郡)’의 이명(異名)으로 ‘毛乙冬非’가 기록되어 있다. 즉 ‘鐵 : 毛乙’의 대응과 ‘圓 : 冬非’의 대응이 성립하는 것이다. 중세국어 ‘털[毛]’에 대한 말음첨기 ‘-르(乙)’의 차자표기법, 그리고 ‘鐵’의 중세국어 한자음 ‘털’을 대응시키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다. ‘圓 : 冬非’의 대응에서는 음차

8) 고구려의 철원(鐵圓), 통일신라의 철성(鐵城), 고려의 동주(東州), 조선의 철원(鐵原) 등의 역사적 변화가 있었다.

표기인 고유어 ‘冬非’가 ‘圓’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풀이된다. ‘철원(鐵原)’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鐵(털<털) : 털[毛乙]’과 ‘鐵[쇠] : 東[새]’의 대응에 대한 옛 사람들의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⁹⁾

지명의 전승에 따라 옛 형태의 의미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음운 변화에 따라 지명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초의 명명에 의도된 지명의 의미가 묻히면서 새로운 재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비록 재해석의 윤색이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의미를 잃는 것은 옳지 않다. ‘이름[名]’이라는 것은 허명(虛名)을 걷어내고, 항상 정명(正名)을 추구해야 하는 숙명을 지닌 존재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명의 유래에는 (9)에 보인 바와 같은 허명의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지명은 하나의 단어이지만, 마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처럼 내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음운과 음운, 형태와 형태가 연결되면서 음운 현상이 개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소의 생산성은 화석처럼 변하여 그 정체를 알 수 없게도 된다. 문화의 화석과 같은 우리 곁의 지명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차자표기,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등의 언어학적 분석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강원도의 몇몇 지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분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비록 언어학적 이론이 참신하더라도 화석이 된 지명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통시적 또는 공시적 측면에서 지명을 언어학적으로 검토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차츰 시야를 넓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귀납하는 것도 지명 연구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여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명지(地名誌)를 발간하고, 지명의 유래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은 지명이 지닌 문화사적 가치를 발굴하여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이러한 작업에 기여하는 언어학적 방법론의 일단이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9) ‘鐵’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털’이지만, 고대국어 한자음으로 ‘털/덜’을 재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원도문화원연합회(2015), 『강원의 고지명』(상하).
고성문화원(1998), 『우리고장의 지명유래』.
국토지리정보원(2015),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진한엠앤비.
김기설(2008), 『강릉고을 땅이름 유래』, 강릉문화원.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무림(2015),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김무림(2015),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김무림·김옥영(2009), 『국어음운론』, 새문사.
김옥영(2014), 「강원도 지역어 연구사」,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도수희(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박성종(2000), 『동해시 지명지』, 동해문화원.
성광수(1980), 「영동지방 지명에 대한 어원론적 연구」,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손주일(2000), 「춘천 지역 지명 접미사에 대한 어휘론적 연구」, 『강원인문논총』 8, 강원대학교.
심보경(2003), 「강원도 지명 연구의 동향과 과제」, 『강원문화사연구』 8,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이영식(2001), 『황성의 지명유래』, 황성문화원.
장정룡(1991), 『강릉의 민속문화』, 대신출판사.
장정룡(1994), 『삼척군 지명유래지』, 삼척군.
정장호(1993, 1994, 1996, 1998),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1~4, 『강원문화연구』 12, 13, 15, 17,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철원문화원(2005), 『철원의 지명유래』.
춘천문화원(1995), 『춘천의 지명유래』.
한국토지공사강원지사(1997), 『강원도 땅이름』.

서울지명사전 편찬을 통해 본 시사점

이 상 배 / 서울역사편찬원장

지명의 의미와 연구동향

- ▶ 정의: 땅에 붙여진 이름
- ▶ 인류의 정착 생활 이후 지명 생성 - 인류의 생활모습, 사상, 문화발전, 역사 등이 담긴 유산
- ▶ 지명 연구 - 언어, 풍속, 역사, 의식, 도덕, 종교 등을 고찰 - 地名學으로 성장
- ▶ 외국에 비해 한국 지명학의 발달은 미미함
- ▶ 서울지명사전(2009) 외 경기도역사지명사전(2011), 한국지명사전(권상노, 1989), 제주토속지명사전(1992), 한국고지명사전(1993) 등 -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지명, 역사 등 일부분에 한정됨

지명의 분류

- ▶ 단순지명 : 원래의 우리 말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이름
- ▶ 자연지명 : 산, 들, 하천, 바다 등 자연물에 붙여진 이름
- ▶ 법제지명 : 토지, 관아, 행정, 군사지명 등 법제적 이름
- ▶ 경제지명 : 산업, 교역지명으로 개간, 농지, 간척, 수산물교류 등과 관련된 지명
- ▶ 문화지명 : 종교, 풍수지리, 인물 등과 관련된 지명
- ▶ 합성지명 : 두 개의 마을 이름을 한 자씩 합쳐 만든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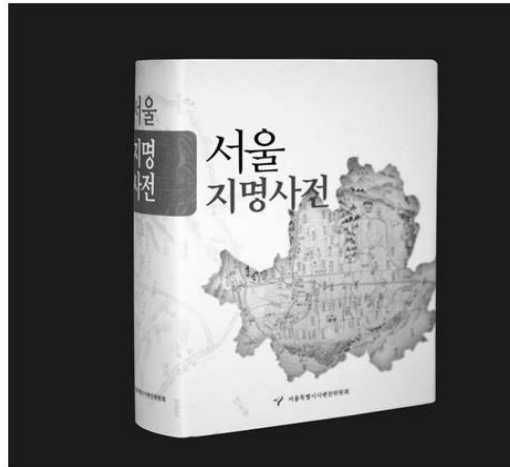
고대의 지명

- ▶ 자연발생적 지명이 삼국시대 이후 체계화 됨
- ▶ 고구려는 186개, 백제 197개, 신라 141개 등 524개의 지명이 수록(삼국사기, 지리지편) -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이두식 문자로 표현
- ▶ 통일신라 경주는 360坊 존재(삼국유사 권5) - 각 방의 이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 지방행정구역 9주 5소경(687년) 등 주군현의 이름이 정해짐(신문왕 때 사벌주, 한산주, 완산주 등 세 글자에서 경덕왕 때 상주, 한주, 전주 등 두 음절의 한자로 바뀜)

서울지명사전의 편찬 기획

- ▶ 기획 : 서울학사전 편찬 → 서울지명사전으로
- ▶ 사유 : 서울학의 개념 정립 부족, 광대한 범위, 전문 분야의 다양성, 전문 인력의 부족, 방대한 예산
- ▶ 기간 : 2003년 - 2008년까지 6년 소요
- ▶ 규모 : 4x6배판 1558쪽
- ▶ 예산 : 1억 8,500만원(원고료 1억 2천, 감수료 및 편집 발간비 6,500만원 - 현재로 환산하면 원고료 15000매에 2억 3천, 감수료 6천, 편집인쇄 8천 등 3억 6천 소요 - 단 인건비 제외)

서울지명사전 책자



서울지명사전의 발간 과정

- ▶ 2003년 : 집필대상 항목 추출 - 법정동과 행정동 2,387개, 마을명 4,539개, 가로명 745개, 다리명 899개, 시설명 1,434개, 조선시대 지명 757개, 자연명 3,365개 등 14,126개 항목 추출
- ▶ 2004-2006년 : 항목별 원고량 책정 후 원고의뢰, 3차에 걸쳐 5,000매씩 원고 집필
- ▶ 2005-2007년 : 전년도 집필 원고에 대한 연구원 원고 교열, 사실 확인 등(연구원 7명 참여)
- ▶ 2008년 : 편집, 교정, 인쇄발간

서울지명사전의 편제

- ▶ 동명 : 법정동, 행정동, 조선시대행정구역, 마을
- ▶ 자연명 : 하천, 산, 강변, 고개, 바위, 연못, 논, 밭, 우물, 나루터, 섬, 들, 골짜기, 광산, 굴, 약수터, 웅덩이, 폭포, 호수 등
- ▶ 가로명 ; 2007년 기준 보조간선도로, 옛길 등
- ▶ 시설명 : 다리, 지하철역, 보도육교, 고가도로,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 ▶ 대분류와 소분류를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편집 (사전 형태)
- ▶ 시점 : 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편집 집필

서울지명사전의 단기적 효과

- ▶ 기관 HP에 E-Book 제공을 통한 자료 활용의 편리성 향상 ➡ 오류 사항의 경우 신속한 수정가능
- ▶ 서울 시내 초, 중, 고 교육 자료로 활용
- ▶ 인문학 관련 강의, 연구, 서적 발간 등의 기초자료로서의 가치
- ▶ 일제강점기 토지 소유권 분쟁 발생시 재판 보조 자료 및 행정정보 자료로 활용
- ▶ Naver, Daum 등의 매체와 협약 후 검색기능 탑재, 각 항목별 태그 작업 후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
- ▶ 일제하 왜곡된 지명 시정 요구

서울지명사전의 활용 가치

- ▶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 민원 발생 감소
- ▶ 지명 자료의 디지털화 후 플랫폼 업로드
- ▶ 공간정보 앱을 통해서 내,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간편한 지명정보 제공
- ▶ 각 분야의 역사 데이터와 결합하여 풍부한 공간의 역사성을 알림
- ▶ 각 자치단체의 공간 스토리텔링 사업, 둘레길, 축제 등 제3의 기초자료로 활용가치 높음

지명사전 편찬의 한계와 유의점

- ▶ 최대한 지명 유래의 정확성 추구 - 단순한 한 개인의 구술이나 한 개인의 주관적인 추론이 정론화되는 오류 주의
- ▶ 사전적 의미의 간결성 추구 - 사전과 개인의 주장을 논증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함
- ▶ 지명의 지역간 유사성, 중복성에 대한 처리 원칙 필요 (예: 상리, 중리, 하리 - 윗말, 중말, 아랫말 등)
- ▶ 디지털 활용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예산편성과 인력구성 필요
- ▶ 산촌과 도시, 해안 등 강원도 지명에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들을 염두에 둔 편제 필요
- ▶ 지역 공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 인력 확보 중요

【토 론 문】

김 상 수 /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김 옥 영 /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김 창 환 /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용 호 선 / 강원일보 논설위원

유 재 춘 /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영 식 / 강릉원주대학교 강사

이 학 주 /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최 흥 열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토론문 1 |

강원도의 지명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김 상 수 /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지명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가 녹아있게 마련이다. 지명을 통해 한 지역의 면면히 이어온 역사와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강원도의 각 지방의 지명 또한 강원도를 인식하는 또 다른 코드가 될 것이다. 지명은 한 지역의 시원(始原)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동시에 시간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변전하는 모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다. 여러 이유 때문에서 고유한 지명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지명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강원도의 지명 또한 이런 동인(動因)이 가장 큰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강원도가 엄청난 물리적 정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기를 맞고 있다. 각 지역의 지명 또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할 수 없다. 지명의 명멸과 부침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명에 대한 연구 및 활용 필요성 또한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지명연구의 방향성과 몇 가지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도로 명 주소제도 시행과 같은 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 지명의 퇴조 현상에 관한 실태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도로 명 주소만 가지고는 지역의 인식하는 것이 더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 적절한 연구 검토나 깊은 고민 없이 도로 명 주소가 명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째는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신도시 조성 and 지형의 변화에 따른 지명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원주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조성으로 인해 기존의 지명의 근거가 사라지고, 새로운 지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셋째는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도로 철도를 비롯한 SOC 확충으로 지명 변화의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강원도의 형상 변화에 따른 지명의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변화를 수용하되 지역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지명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 영동고속도로 개설 때 영동 제1 터널 제2 터널과 같은 나열식 작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다.

넷째는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2006년 일제 강점기 고시된 정선의 가리왕산(加理旺山), 평창의발왕산(發旺山) 일왕을 뜻하는 왕(旺)을 왕(王)으로 변경 고시하는 등 일본식 지명 고쳐 왔으나 우리나라 지명의 30%가 일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는 지명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한 때다. 경기도 오산(烏山) 시는 지명을 활용한 ‘반포지효(反哺之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989년 지정한 시조(市鳥)를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영월군 주천면의 술 샘 박물관과 주막거리조성 도 지명을 활용한 마케팅의 한 사례일 것이다.

여섯째는 지명 연구 및 활용에 관한 통합 연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명의 착오나 오류, 왜색과 같은 지명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구전되는 지명이나 논란이 되는 지명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판단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지명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토론문 2 |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지명 연구(김무림)’에 대한 토론문

김 옥 영 /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이 논문은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명 연구의 언어학적 측면을 다룬 연구입니다. 논문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지명 예시 자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명 자료에 대한 통시적 분석에서 각 지명의 음운 및 형태에 대한 언어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부에서 제시한 지명의 가치, 즉 지명이 특정 지역의 이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지명 연구의 의의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문의 성과에 더하여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내용을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1. 지명 자료수집의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2. ‘2.2. 음운론’에서 음운의 탈락, 교체, 첨가로 나누어 지명의 변화 양상(A>B)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예에서 이전 시기의 지명(A)에 해당하는 각 형태의 논리적 추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2.3. 형태론’에서 지명을 ‘전부요소+후부요소’로 분석한 후 후부요소를 어휘의 기원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명의 구성 방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형성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일반적으로 지명에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방언형이 모두 담겨있다고 합니다. 지명 연구와 방언 연구의 경계에 대한 생각이나, 이들 두 분야의 효율적 연계에 대한 평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5.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강원도 지명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입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 지명 연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토론문 3 |

강원도 지명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김 창 환 /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지명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취락, 지형, 하천 등에 붙이는 고유한 이름이다. 다시 말해서 지명은 지역주민들의 환경지각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명은 직접적으로 인식된 공간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정치적 변화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민속이나 인구 이동, 언어의 확산과 음운 변화, 지표를 점유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각과 변경,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가치 평가와 관념 등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일종의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명이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의미없는 지명이 탄생하기도 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토지 이용의 변화, 교통 발달, 도시화 과정 등으로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명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명이 문화유산이자 문화콘텐츠로서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학의 일부로서 강원도 지명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명 연구는 지명을 중요한 언어 형태로 생각하고 일찍부터 고어와 방언 연구, 국어 의미론과 어휘론 연구 등에 활용해 온 국어학 분야를 비롯하여 역사학·민속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도 지명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명이 지역성 파악에도 매우 유용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연구하는 지리학에서는 지명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해 왔다. 과거부터 축적된 지리적 지식 체계와 생활공간에 대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동해나 독도와 같은 지명의 지정학적 의미, 한 지역의 문화역사적,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요소로서의 지명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지명 연구는 어느 특정 분야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명은 지역에 대한 언어적 정보를 토대로 위치정보, 역사정보, 행정정보 등 국어학, 역사학, 지리학, 민속학, 행정학

등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지명 연구의 연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심보경 교수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강원학의 한 분야로서 강원도 지명 연구를 위해서는 지명의 분석,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를 통한 분석, 일본식 지명의 관리와 정비 방안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 지명을 학술 자료로서 발굴하여 해석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파악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명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지명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의 결과 탄생한 도로명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도로명이 갑자기 제정하다 보니 지역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토론문 4 |

현지 · 현장에서 삶의 정취를 채집하는 정성 보여야

용 호 선 / 강원일보 논설위원

세 분의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돼 깊이 감사드리느바 입니다. 심보경 교수(한림대)의 폭 넓은 고찰, 김무림 교수(강릉원주대)의 언어학적 의미와 가치 제고, 이상배 원장(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지명사전」 편찬 사례에서 얻게 되는 시사점이 크게 다가와 지명연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한다. 비단 지명뿐만이 아니라 기관·단체, 시설물 등에 부여하는 명칭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지명 연구’에서 김무림 교수가 정의한 대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명지(地名誌)를 발간하고, 지명의 유래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은 지명이 지닌 문화사적 가치를 발굴하여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강원도지명사전」 편찬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궁극적인 취지일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사전의 필요성과 절박함이 직감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주제발표에서 제기된바와 같이 지명은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토대위에서 삶을 일구는 모두의 인식에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자 상식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무수히 목격하기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하는 바다. 일례로 2013년 철원군에서 빚어진 ‘군탄공원’의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 전역지공원’ 명칭 변경 시도를 거론하게 된다. 군의회를 통과, 강원도지명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이다. 철원군 관계자들이 읍소하다시피 했지만 위원들의 다각도 토론 결과는 부결이었다. 당시 한 신문에 나온 제목이 부적합함을 웅변했다. ‘되살아나는 망령 유신마케팅 실태’라는 일침이었다. 지명에 담기는 의미와 거기에서 우러나는 생활 정서를 감안하면 위험천만한 경우였음을 재인식하게 된다.

범사의 이치가 그렇듯 지명도 생로병사를 겪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근래 들어 종종 목격하게 되는 지명변경 사례를 주시하게 된다. 평창 ‘도암면’의 ‘대관령면’으로의 변경 당시 논란이 적지 않았음에도 끝내 관철됐다. 영월 ‘김삿갓면’도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춘천 신동면의 경우, ‘김유정면’으로의 변경이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다. 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를 설득, 이

지역의 ‘신남역’을 ‘김유정역’으로 개칭했지만 면 명칭은 주민들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명칭 변경 의도가 주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기에 그랬다.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사례다.

도로와 터널, 교량 등의 시설물에 적용되는 명칭도 지명의 경우와 같은 맥락으로 인식해 야 한다. 영동고속도로의 ‘둔내터널’과 ‘봉평터널’은 뒤늦게 부여된 명칭이다. 이와 같은 경우로 춘천 ‘소양8교’라는 명칭이 내포한 부당성을 언급하게 된다. 이제껏 소양강에 놓인 다리들이 숫자나열, 도역식 명칭이다. 더구나 그 위치가 뒤죽박죽이니 그야말로 헛갈리다. 이러한 불편함을 바로 잡는 것도 합리적인 지명 활용을 강조하게 한다.

토론자의 제안으로 지명연구의 현장 밀착을 주문한다. 이번 주제발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강원지방 옛 지명·유래·전설·풍습」(2001년 강원지방 옛 지명 연구소 발행) 편저자인 김명환 씨가 권두 ‘책머리에’ 적어 놓은 구절이다. “1970년대 「읍면순례」 연재시 15개 읍 98개 면의 고을별 좌담에 참여해 주셨던 900여 지역인사 여러분과 1987년부터 ‘내 고장의 옛 지명’ 제하의 지명유래 연재(강원일보)에 도움을 주신 (...) 그리고 시·군·읍·면·동 사무소에서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늦게나마 고마움을 드린다.” 이러한 자세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 토론문 5 |

강원도 지명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유재춘 /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강원도 지명의 연구 성과와 방향>(심보경교수님 발표)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강원도지역에서의 지명 관련 자료집과 지명 연구 성과에 대해 잘 정리를 해주셨고, 앞으로 지명연구의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강원도 지명 정리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과거의 지명 연구가 국어학계, 역사학계, 민속학계, 지리학계 등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점을 지적하시며 통합적, 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또 기존에 발간된 강원도내 각 시군의 지명 자료집이 일부 충실성이 돋보이는 자료집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사례가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지명유래 집필자 혹은 현장 조사자가 지명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연구 방향성으로 제시하신 몇 가지 제언은 기존의 지명 연구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매우 필수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문헌 및 고지도에 있는 지명의 정리, 지역별로 간행된 기존 지명 관련 자료집에 대한 정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지명 자료집은 고지명에 대한 별도의 연구나 정리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채록된 현대지명과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분명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해석이 개재되거나 모호한 지명표기가 있었습니다. 각종 사서나 지리지, 고지도 등 뿐만 아니라 고문서, 족보, 금석문 등에도 많은 고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가 먼저 선행되면 그야말로 지명 관련 1차 사료가 정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단순히 고지명에 대한 정리를 넘어서 <강원도고지명사전>을 먼저 편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 고지명 해석에 대한 사전적 의미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지명 연구>(김무림교수님 발표)와 관련하여

지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변천상과 본래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는 점에서 김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지명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존 지명연구에서 이런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새로운 지명 정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님께서 ‘春川’이라는 지명이 과연 ‘봄내’에서 왔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내시면서 지명의 借字 표기에서 거론하시었습니다. 춘천에 살고 있는 시민 중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봄내’가 ‘春川’으로 한자 표기가 되기 전에 본래 지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봄내’는 현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지명일 뿐 춘천 고유지명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춘천 고유지명과 관련이 있는 명칭은 牛首州(혹은 牛頭州)일 것이고, 신라 때 朔州는 朔方(즉, 북쪽을 말함)에 있는 고을이라는 의미였고,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춘천의 전신이 되는 ‘春州’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는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동쪽에 위치한 고을이라고 하여 ‘東州’라고 해야하지만 철원을 ‘동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춘천지역은 ‘春方’(즉, 동쪽을 말함)에 있는 고을이라고 하여 ‘춘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교수님의 발표문을 보니 지명유래 오류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미론에서 시대를 내려오면서 본래 命名의 有緣性을 상실하고 건강부회되고 윤색되어 엉뚱한 유래를 갖게 된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하면서 이런 오류를 하나 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향후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님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가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무엇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명 후부요소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명 후부요소의 지역별 차이도 있지만 혹 시대적 변화상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연구도 가능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지명사전 편찬을 통해 본 시사점>(이상배 원장님 발표)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명사전 편찬사업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사전 편찬이 주는 효과와 향후 활용가치 등에 대해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서도 지명 관련 정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명사전을 편찬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나 작업을 착수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준비작업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편찬사업과정에서는 사전다운 ‘정확성’을 가장 강조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지명에 관한 연구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니다. 고지명에 대한 현재 지명 고증이나 지명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 지명사전편찬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였는지 추가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헌에 나오는 고지명을 어느 정도 까지 추출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강원권한국학자료센터구축사업을 강원대학교에서 현재 고문서 자료를 수집해 4년차 사업까지 해왔는데, 호구문서나 소지류, 명문류 등에는 여러 강원도 고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기록물에 나타나는 지명까지도 추출하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 분 발표자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새 주소지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 직후 전국 면리동통폐합을 한 후 한국에서 일어난 지명 관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이 왜 그렇게 졸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명은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이고, 우리말의 중요한 일부여서 심보경교수님은 ‘공공언어’라고 까지 언급하셨는데 이런 졸속정책이 나오는 것은 지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편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명 주소와 자연지명(고유지명) 주소를 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일괄 통합하여 엉뚱한 지명이 속출하여 향후 시간이 흐르면 본래 지명에 대한 왜곡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분 발표자께서 도로명주소 일괄 변경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명에 대한 연구와 사전 편찬 등이 이러한 조용한 문화충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토론문 6 |

강원도 지명사전 발간을 위한 여러 생각

이 영 식 / 강릉원주대학교 강사

1. 강원도지명사전을 ‘대사전’으로 만들 것인가?

→ 강원도 지명 대사전 규모로 발행하려면 강원지역의 모든 지명이 정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사전 격에 맞는 해당 지명의 어학·역사·민속 등 종합적 설명과 더불어 유사하거나 동일한 타시군의 지명과 비교한 설명 또한 필요하다.

2. 강원도 시군에서 발행한 지명유래의 내용 및 숫자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충조사가 필요하다.

3. 강원도는 산이 많다보니 골짜기도 많고, 이에 따른 지명도 많다. 골짜기에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따라 개울이 형성되는데, 개울에 대한 이름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울 이름이 골짜기 이름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는데, 시내 이름 또한 자세하지 않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개울 또는 앞개울 등으로 명명될 수밖에 없다.

4. 없어진 마을의 지명도 정리할 것인가?

→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부동리·중금리·포동리·화전리 등이 횡성댐 건설로 마을 전체 또는 일부가 수몰된 까닭에 리명(里名)은 물론 자연마을 이름과 골짜기 이름 또한 위치를 확인하기 힘들다. 소양댐의 경우는 횡성댐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5. 지명 사전을 발행하려면 DB(데이터베이스) 작업과 더불어 GIS 활용이 필요하다.

6. 지명을 하나로 묶어 정리할 것인가 나눠서 정리할 것인가?

‘안돌이지돌이다래미한숨바우’ 라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에 있는 길로서, 정선아리랑연구소가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이 긴 지명이다. 지명은 강원도 사투리로,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서 보면 ‘안돌이’는 ‘바위를 안고서야 가까스로 지나가는’, ‘지돌이’ 는 ‘바위를 등지고 겨우 돌아가는’의미라서 ‘안돌이 지돌이’는 곧 ‘바위가 많아 두 팔을 벌려 바위를 안고 돌고, 또는 등을 지고 돌고’, ‘다래미’ 는 ‘다람쥐도’, ‘한숨’ 은 ‘한숨을 쉬는’, ‘바우’ 는 ‘바윗길’이라는 의미로, 즉 바위가 많아 두 팔을 벌려 바위를 안고 돌아야할 만큼 험해서 다람쥐 마저도 한숨을 쉬고 가야 할 수준의 길이라는 뜻이 된다.¹⁾

“안돌이 [바위] 호암 앞 냇가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를 안고 돌아야 물에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돌이 [바위] 안돌이 아래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를 지나려면 올라갈 때는 기어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바위에 등을 대고 내려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²⁾

1) <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B%8F%8C%EC%9D%B4%EC%A7%80%EB%8F%8C%EC%9D%B4%EB%8B%A4%EB%9E%98%EB%AF%B8%ED%95%9C%EC%88%A8%EB%B0%94%EC%9A%B0>

2) 이영식,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245쪽.

| 토론문 7 |

지명은 사람이다, 지리지개념의 지명조사와 지명집이 필요

이 학 주 /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오늘 이렇게 훌륭한 지명 관련 학술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리고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모두 주옥같은 아름다운 연구를 해서 강원도 지명 연구와 조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화천의 ‘파로호’지명에 대한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느낌인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로호(破虜湖)’, ‘대봉(제)호(大鵬(堤)湖)’, ‘대명(제)호(大鵬(堤)湖)’라는 세 개의 이름을 놓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명을 바꾼다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명도 세월 따라 바뀝니다. 아주 흔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강원도 임계면 골지리(骨只里)가 문래리(文來里)로 바뀌고, 영월의 서면이 한반도면, 하동면이 김삿갓면, 수주면이 무릉도원면으로 바뀐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춘천의 지명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번의 개명이 있었습니다. 곧, 맥국-오근내(烏斤乃)-주양(走壤)-우곡성(牛谷城)-牛首(頭)州-수약주(首若州)-수차약(首次若)-삭주(朔州)-광해주(光海州)-춘주(春州)-안양도호부(安陽都護府)-춘주-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조 태조 5년(1396)에 고을 명칭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춘천(春川)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연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은 단순히 땅이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형(地形)을 보고 이름을 짓거나 사연에 따라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땅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처럼 지명은 사람의 생활이 반영됩니다. 사람이 지명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지명에 풍수지리처럼 귀속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지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수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지명은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불리지고 있습니다. 지명 자체의 좋고 나쁨이나 유래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방향, 행선지,

만남의 장소 등 모든 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불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생활 중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명은 이제 그 자체의 어원뿐 아니라, 그곳에 얽힌 사람들을 규명해 내는 일까지 연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활 전반이 지명 속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지역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역학의 범주도 행정구역에 있는 지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강원학’, ‘춘천학’, ‘원주학’, ‘강릉학’이라는 명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명이라는 공동구역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명에는 그 지역의 민속이 있고,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곧 그 사람들의 생활구역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지명은 지리지(地理誌)개념으로 연구되고,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지명에는 고유한 사람들의 삶이 배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 지명 뿐 아니라 작은 지명도 지리지 개념으로 조사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지리지는 일반 지리적 내용과 일정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혹은 부문별로 서술한 책입니다. 예로 강원도에는 『관동지』, 『강원도지』, 『여지도서』 등이 있습니다.

지명 연구의 과제

최 흥 열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명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보물이다. 지명 연구는 단순히 땅 이름의 역사적 변천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를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를 재구하고 현재를 발견하며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총체적 연구 분야로 인식 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명 연구는 언어학적 관점 중심의 연구에 집중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 융합, 통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명 연구’는 그 분야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연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지명 연구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학문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지명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그 어떤 학문 분야보다 변화와 융합, 통섭의 연구 자세가 필요한 학문 분야이다. 이제 과거 - 현재 - 미래를 잇고 학문의 영역을 넘나들어 실증적이며 동시에 창조적인 학문 분야로서 재탄생 될 시간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1. 학문 영역 간 통섭

지명 연구는 언어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영역의 관심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타 학문 영역과의 교류는 객관적 자료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창조적 시각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지명 연구에 매우 유익하다. 통섭이 요구되는 학문 분야로는 역사, 지리, 문학, 인류,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등이 있다. 역사나 지리와의 통섭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고전 문학작품을 통한 자료의 보완이나 재구 등은 인접 분야와의 통섭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류학이나 인구학 분야의 관련 자료들 역시 지명 연구에 필요하며 이때 자연과학적 접근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명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연구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콘텐츠 분야와의 통섭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분야의 접목 역시 매우 중요한데, 학문 분야 간 통섭적 연구를 위해서는 참여형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방법론 - 아카이빙

지명 연구는 특히나 실증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의 구축이 중요하다. 즉 지역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구축될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지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자료를 정리,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연구는 그저 산발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사행노정을 주제로 노정의 주요 장소들을 사진, 영상, GPS 자료로 구축하고 있는 연구자(신춘호 박사)의 연구 성과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 답사를 통해 구글 지도에 수백 개의 중요 연행 노정 지점을 지정하고 각 지점마다 문헌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 구글채록 자료 등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 개인의 연구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방대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자료 구축을 여러 연구자가 통합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누적시킨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현재 언어학 연구에서는 개방형, 참여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의 연구를 뒤따라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명 연구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강원도 지명사전편찬」을 위한 학술세미나
강원도 지명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인 쇄 2019. 6. 20

발 행 2019. 6. 20

발행처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인쇄처 도서출판 산책
